

핫 토픽

임계점:

기후변화의 **적색 경보**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동물을 사랑합시다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5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새해에는

지구의 미래를 바꾸길 희망한다

채식 시대

‘지구를 먹어 치우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영화

특집 기사

가슴 뭉클한 화상회의

『고귀한 야생』 신간 발표회와

‘함께 지구를 구하자’ 심포지엄

수프림 마스터 인터넷 시청

텔레비전

www.SupremeMasterTV.com/kr

14개 위성을 통해 전세계 동시 방송

스승님의 2008년 음력설 인사

칭하이 무상사/ 2008. 2. 7. 2008년 음력설 화상회의 (원문 영어)

새해는 축하와 재회, 관용과 화해, 용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여전히 그 대부분의 거주자들에게 풍성한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제공해 준 데 대해 전세계 수십억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존재들이 앞으로 해마다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천국의 은총으로 모든 이들이 사랑과 지혜를 갖추어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그리고 선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조화로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모두가 힘과 용기를 쇄신하여 고귀한 길을 걷고 고귀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굳은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국을 지상으로 가져와 모든 존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길 기원합니다.

많은 사랑과 행복이 깃든 풍족하고 행운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스승님의 2008년 음력설 인사 말씀을 시청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Luner2008.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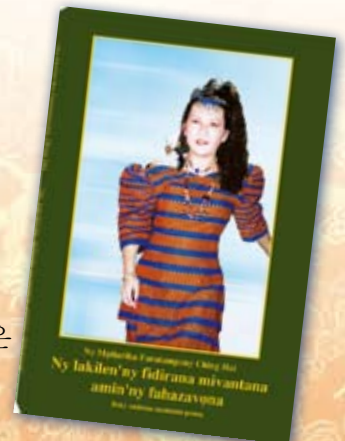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견본책자

말라가시어(Malagasy)

(마다가스카르·코모로·레위니옹·마요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 다국어 목록에 없고 견본책자를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divine@Godsdirectcontact.org



뉴스잡지 195호



출판일자: 황금시대 5년(2008년) 9월 20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고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스승님의 2008년 음력설 인사
02/ 42 50/ 75	영혼의 고양 견본책자/ MP3/ 서적/ DVD/CD/ Birdie 쇼핑 가방
04	다채로운 이벤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가나/ 어울락/ 홍콩/ 대한민국/ 몽골/ 포모사
22	특별 보도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의 '칭하이데이' 축하 메시지/ 송고한 영혼에 바치는 경의
25	주요 연락처
26	핫토픽 임계점: 기후변화의 적색 경보
28	'SOS' 전단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를 구할 행동을 취하자
30	빛나는 세계 영웅상 록클린의 클라우드 워커 씨/ 마누엘 지저스 코르도바 소베라네스 씨
32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인테르지트 쿠라나 여사/ 토니 구오가 씨
34	빛나는 세계 자비상 한나 테일러/ 압둘 사타르 에디 씨/ 엘레노어 홀 여사/ 토니 루티먼 씨/ 레이타 헛슨 여사
39	황금시대의 과학 기술 공기 자동차 혁명
40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부자 인연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다시 고향 - 진실로 마음을 감화시키는 존재
43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새해에는 지구의 미래를 바꾸길 희망한다
47	특집 기사 가슴 뭉클한 화상회의 '고귀한 야생' 신간 발표회와 '함께 지구를 구하자' 심포지엄
51	동물의 감성 세계 생기 넘치는 바퀴 달린 개, 우노/ 감전 사고로부터 보호자를 구한 강아지
52	관음 웹사이트
53	채식 시대 지구를 먹어 치우다-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영화/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채식주의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54/ 74	스승님의 농담 기차 안 티타임/ 평권을 잘 돌보려고
55	사랑의 실천 호주/ 모잠비크/ 미국/ 어울락/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중국/ 포모사/ 2007년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세계 각지 구호 활동, 자선 단체 기부, 뛰어난 인물·동물들에 대한 표창 일람표
71	전세계 연락처
뒤표지	무상 예술 파라마한사-제12대 천상의 보석



인류는 넓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지금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사태의 긴박성을 꿰뚫어 보신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만드신 새로운 전단을 통해 위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시며 기후변화의 양상을 되돌릴 수 있는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람들을 일깨우신다. 'SOS-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전단은 심각한 현 상황을 알릴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지구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제시한다. 스승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 채식, 재생 에너지, 녹색 기술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여러 언어로 된 전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prememasterchinghai.net/sos.htm>



어머니 지구를 돕고자 힘을 모으다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올랜드] 전세계적인 'SOS' 전단 배포 활동의 일환으로 플로리다 센터 동수들은 남부 플로리다의 주요 신문인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rald)』에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는 'SOS' 전단과 더불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정보, 무료 'SOS' DVD를 구할 수 있는 연락처, 조만간 열릴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구합시다!' 강연회 소식과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스승님의 신간 『고귀한 야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우리는 스승님의 은총으로 윤년 2월 29일자 신문에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전면 광고를 실을 수 있었다.

광고를 내보낸 후 지금까지 'SOS' DVD를 구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매우 열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마이애미 CBS TV 방송국은 뉴스로 방송하거나 자기네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동수들에게 연락을 취해 왔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보도 자료를 만들어 그들 방송국을 통해 방송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또한 동수들이 약 1만 5천 장의 'SOS' 전단과 8백 개의 DVD를 배포하자 지구 온난화에 대해 모르고 있던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며 이 소식을 전파하는 데 돕겠다고 나섰다. 어떤 남자는 동수들이 그를 위해 휘발유를 구입해 주는 동안





혼자서 많은 전단을 나눠 주기도 했다. 동수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인식하고 어머니 지구를 구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곧 있을 올랜드 '지구의 날'과 같은 행사에 참가하고 더 많은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아시아 축제에서 스승님의 'SOS' 메시지를 전하다

오리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리건]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16일과 17일, 태양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오리건 주 유진(Eugene) 시에서 아시아 축제가 열렸다. 오리건 센터는 운 좋게 주요 출입구 옆에 부스를 배정받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현수막과 깃발을 걸고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해 '수프림 마스터 TV'를 방송했다. 또 그 주위에는 무료 'SOS' 전단, 견본책자, 『대안적인 삶』 요리책자, 지혜의 과자가 담긴 바구니들을 놓았으며 부스 양측에 7피트 높이의 'SOS' 세로 현수막을 걸고 스승님의 출판물과 창작 예술품도 전시했다.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를 둘러보았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티셔츠를 입은 사형사자들이 'SOS 전단'이 든 '대안적인 삶'·'수프림 마스터 TV' 재생 쇼핑백을 나눠 주었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긍정적인 TV 채널을 알리는 살아 있는 광고판이 되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채식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으며, 많은 이들이 채식을 하겠다면서 『대안적인 삶』 요리책자를 받아 갔다. 방문객과 다른 부스 참가자들 모두 위성과 인터넷으로 '수프림 마스터 TV'를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기뻐했다. 영성을 갈망하는 한 젊은 이는 바로 자신이 추구해 온 것이 관음법문에 있음을 발견했다.

훌륭한 스승님 덕분에 지구를 구하는 노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신이 돌보신다

보스턴 뉴스그룹 (원문 영어)

[보스턴] 채식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스승님의 메시지에 부응해 보스턴 센터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음력 설 기간 동안 일련의 행사를 개최했다.

2월 1일, '관음채식식당'은 우스터 노인 사무부(Worcester Division of Elder Affairs)와 노인 복지 영양 프로그램




(Nutrition Program of Elder Services)과 협력해 우스터 노인 센터(Worcester Senior Center)에서 150명이 넘는 아시아 노인과 귀빈, 직원, 자원 봉사자들에게 순수 채식으로 된 음력설 점심을 제공했다. 이 즐거운 채식 연회는 참가자와 귀빈들로부터 올해 행사가 그 어느 해보다 훌륭했다며 대단한 찬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채식 음력설 차림을 우스터 노인 센터의 관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2월 2일, 동수들은 보스턴 어울락 음력설(Tet) 행사에서 스승님의 예술 작품과 문학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 행사에서 '관음채식식당'은 수천 명의 참석자들에게 채식 음식을 제공한 첫 번째 부스가 되었다. '수프림 마스터 TV'와 '대안적인 삶' 전단은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았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진지하게 훑어보며 감상했다. 또한 사이공 TV 방송국(SBTN)과 매사추세츠의 공영 TV·라디오 방송국인 WGBH에서 협회 회원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수프림 마스터 TV' 지역 통신원들은 잭 하트(Jack Hart) 상원의원(사진 1)과 마이클 플래어티(Michael Flaherty) 보스턴 시의원, 토마스 메니노(Thomas M. Menino) 보스턴 시장을 인터뷰해 보스턴 지역과 매사추세츠 주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견해와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날 마침 '보스턴 환경 엑스포(Boston Green Expo)'가 보스턴 어울락 음력설 행사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열려 '수프림 마스터 TV' 팀은 많은 환경 단체를 만나 인터뷰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맛있는 채식 음식도 권할 수 있었다. 그날 행사를 마친 동수들은 센터로 돌아와서 동물 친구들이 생명을 구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공연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스턴 동수들은 모든 이들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면 신께서 자비와 은총을 내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임을 깨달았다! 

2008년 테트 축제에서 스승님의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보급하다

미국 뉴스그룹 종합 (원문 영어)

음 력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는 테트 축제는 어울락의 가장 큰 전통 명절이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용서하고 빗을 갇고 지난일은 잊어버린다. 올해 미국 많은 도시의 어울락



교민 사회는 무자년 신년을 맞이하는 테트 행사를 주최했다. 협회 회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수프림 마스터 TV’를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SOS’ 메시지를 전했다.

[새너제이] 황금 시대 5년(2008년) 2월 10일, 흥겨운 테트 퍼레이드를 보려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



인 가운데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가방 2천 개, ‘SOS’ DVD 2천 개, ‘수프림 마스터 TV’와 ‘SOS’ 메시지, 스승님의 책을 소개하는 전단 3만 장, 스승님의 시·음악 CD 2백여 장을 나눠 주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스승님의 인도주의 활동에 찬사를 보냈으며 서로 앞다투어 협회 회원들의 인터뷰에 응했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2월 3일 현지 어울락 음력설 경축 활동에 참가해 부스를 차렸다. 많은 어린이들이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깨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동수들은 이 책들을 선물로 나눠 주었다. 또한 관심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채식 요리책자도 나눠 주었고 ‘SOS’ 전단, ‘대안적인 삶’ 쇼핑백, 그리고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라고 적힌 풍선도 배포했다. 이 외에도 북부 캘리

포니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어울락 주간지에 ‘수프림 마스터 TV’가 전세계 위성으로 방송된다는 광고도 실었다.

[휴스턴] 1월 6일과 7일, 휴스턴 릴라이언트 체육관(Reliant Arena)에서 열린 연례 테트 축제에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동수들도 참가해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하고 정선된 채식 요리를 제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채식 요



리의 맛과 모양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관한 ‘수프림 마스터 TV’의 ‘SOS’ 메시지를 상영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어했다.





[로스앤젤레스]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파크 (Garden Grove Park)’에서 열린 테트 축제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동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10가지의 맛있는 채식 요리에 이끌려 우리 부스를 찾아온 많은 이들이 채식 생활 방식에 대해 질문했다. 사형 사저들은 스승님의 출판물도 전시하고 ‘SOS 기후변화’ 전단이 든 ‘수프림 마스터 TV’·‘대안적인 삶’ 소핑백도 나눠 주었다.

이 모든 행사는 대중에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생활 방식을 소개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2008 블루마운틴 환경 정상회의

시드니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시드니]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23일, 시드니 센터 협회 회원들은 필 카퍼버그(Phil Koperberg)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환경부 장관이 주최한 ‘2008 블루마운틴 환경 정상회의(Blue Mountains Environment Summit)’에 참석했다. 지역 사회 주민들도 초대된 이번 행사에서 과학자, 환경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지구가 긴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역설했다.

이 회의에서 우리 협회 회원들은 호주 국민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해 채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기후변화 해결책에 대한 제안이 담긴 편지와 기후변화에 관한 DVD, ‘SOS’·‘대안적인 삶’ 전단, 뉴스잡지를 카퍼버그 장관에게 선물했다. 그는 이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며 지역·주·연방 정부에 보내 검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참가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온실가스 방출과 육식의 연관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중 ‘대안적인 삶’과 채식에 관한 소식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는 지역 학교들이 주최한 ‘청소년 환경 정상회의’가 열려 지구를 구하려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



뉴사우스웨일스 주 기후변화·환경·수자원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카퍼버그 씨.





으로 참가했다. 청소년 정상회의에서 블루마운틴 중학교(Blue Mountains Grammar School) 학생들이 학교에서 탄소 평형 시설이 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환경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 청소년들 중에 채식인으로서 환경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벤(Ben)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의 순수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켰다.

이번 ‘블루마운틴 환경 정상회의’를 통해 많은 호주인들이 지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뻐다. 호주 정부와 세계 각국 정부가 하루속히 이 지구 행성의 밝고 푸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제정하길 기원한다. 🌸

‘수프림 마스터 TV’가 음력설 축제에서 환영받다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제협회 회원들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연례 어울락 음력설 축제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 동수들은 맛있는 어울락 채식 음식을 제공하고 대형 TV 화면으로 ‘수프림 마스터 TV’ 음력설 특집 프로그램과 ‘지구-우리의 사랑스런 집’ 프로그램도 상영했다. 이 외 스승님의 책을 전시하고 기후변화 전단도 방문객들에게 배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스 옆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그중 일부는 집에 위성을 설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대안적인 삶’ 메시지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시청에 큰 흥미를 보여서 마음이 흐뭇했다. 행사를 마친 뒤 시드니 센터에는 위성과 인터넷을 통한 ‘수프림 마스터 TV’ 시청과 관음법문 입문에 대해 문의하는 많은 전화가 걸려 왔다. 이를 통해 시드니 동수들은 ‘수프림 마스터 TV’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유익한 소식을 전파하는 의식 있는 인사에게 감사를 표하다

오클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클랜드]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18일, 오클랜드 센터 동수들은 아이샵(EYE Shop)의 회계부장인 웨슬리 페디(Wesley Peddie) 씨에게 감사장과 선물,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달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전세계 위성 방송을 적극 지지해 준 데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페디 씨는 뉴질랜드에 있는 23개 주요 쇼핑몰의 회전 광고판과 전광판에 무료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보다 좋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지털 간판 몇 곳도 제공해 주었다.

페디 씨는 선물을 받고 놀라워하며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수프림 마스터 TV'를 즐겨 본다고 하면서 이들 쇼핑몰에 우리 광고를 최대한 오랫동안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홍보 활동이 이미 끝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제1 순위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광고해 주고 있다. 또한 페디 씨는 '수프림 마스터 TV'가 뉴질랜드와 전세계에 긍정적이고도 마음을 일깨우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격찬했다.

풍성한 신의 축복이 웨슬리 페디 씨와 함께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길 기원한다.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스카이 TV 방송 시작

서리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서리]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4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당당하게 영국의 스카이 위성 TV로 방송을 시





작했다. 이로써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의 약 2,200만 명이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서리 센터 협회 회원들은 인근 도시들을 다니며 이 흥미진진한 뉴스 채널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알아봤는데, 인터뷰 결과 전부 다 긍정적인 반응뿐이었다. 일례로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된다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또 다른 사람은 이 채널이 “정말 환상적”이고 “눈부시다”고 칭찬했으며 그의 친구는 “이 방송은 문화와 문화를 서로 연결해 줄 것이며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고 이 행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거듭었다.

스승님의 은총이 포근한 사랑의 담요처럼 영국과 아일랜드에 퍼져 나가며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세상을 돕고 계시는 이때 이 특별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특권이자 영광이었다. 🌸



언론사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다

아크라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아크라] 지난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새로운 위성 채널로 정식 방송된 기간에 협조해 준 『스테이츠맨(Statesman)』, 『디스패치(Despatch)』, 『크루새딩 가이드(Crusading Guide)』, 『뉴타임스(New Times)』 등 4개 언론사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아크라 센터 협회 회원들은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2일, 그들에게 선물과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언론사 직원들은 우리의 친절한 행동에 매우 감동하고 기뻐했다. 그들은 스승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기꺼이 계속해서 스승님의 고귀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평화와 사랑의 음악 선집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뉴스 팀 (원문 영어)



호평받는 어울락 작곡가 짠 광 록 씨.

[어울락] ‘어울락 음악협회(Au Lac Music Association)’와 ‘청년출판사(Youth Publishing House)’, ‘티엔브엉사(Thien Vuong Company)’는 세계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바람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어울락의 저명한 작곡가 짠 광 록 (Tran Quang Loc) 씨의 음악 선집과 부록 음반 CD를 공동으로 출간했다.

50곡의 노래가 실려 있는 이 책과 CD에는 지난 40년에 걸친 작곡가의 작품과 함께 다른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음악으로 개작한 곡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26일에 출간되자마자 대단한 선풍을 일으켜 한 달 만에 재판되었다.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는 피반

(Phi Van: 칭하이 무상사의 젊은 시절 필명)이 쓴 ‘바라는 것은 오직(Only Wishes)’이란 시인데, 그 아름다운 시구는 젊은날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이 노래는 짠 광 록이 작곡하고 유명한 어울락 예술가들이 연주한 스승님의 음악 DVD ‘당신을 사랑한 이래로’에 수록된 10편의 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짠 씨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논하면서, “나의 바람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사랑할 때 나와 같은 작곡가, 예술가들은 모든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노래를 창작해 음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작곡가 짠 광 록 씨의 CD와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들으신 칭하이 무상사는 열렬한 축하와 함께 세계에 대한 그의 예술적 공헌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다.

작곡가 짠 광 록 씨의 이 아름다운 신간이 큰 성공을 거두길 진심으로 바라며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선율을 전달하는 그의 고귀한 사명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



‘당신을 사랑한 이래로’ DVD를 구입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smchbooks.com

짠 광 록 작곡가의 음악 선집과 CD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congtythienvuong@yahoo.com.vn

이 음악 선집과 CD 출간에 대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보도를 시청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TQL.php>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마주치는 긍정적인 소식의 환영 인사

[하노이] 현재 하노이에 새로 지은 국제공항에는 새로 설치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판이 어울락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과 귀향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5m 길이의 이 광고판은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1일, 가족과 재회하고자 어울락으로 귀국하는 해외 동포와 휴일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음력설 기간에 맞춰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에 설치되었다. 이 멋진 정보는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약 800만 승객에게 이로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울락 정부와 하노이 당국, 그리고 이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데 협조해 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중의 각성을 촉구하는 지구 온난화 캠페인 전개

홍콩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홍콩]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9일부터 17일까지 홍콩 동수들은 영어와 중국어로 된 'SOS 지구 온난화' 전단을 첨부한 2,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정부 부처, 신문, 잡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 각 대학, 기관, 기업체로 발송해 다음과 같은 고무적인 응답을 받고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HKSAR) 쟁인첸(曾蔭權) 행정장관은 우리의 환경 보호 의식에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부에 가능한 한 빨리 답신을 보내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소방국에서는 직원과 구내 식당 관리자, 식품 조달 책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육식을 줄이도록 권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들은 또한 소방국이 환경 보호와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헌신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덧붙여 소방국은 지구를 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했다.

『아시아 시티 매거진(Asia City Magazine)』에서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에 감사를 표하고 편집부를 통해 이 정보를 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회답했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은 홍콩에 있는 자사 AIA 재단을 통해 이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AIA 재단은 지역 사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 중점을 둔 훌륭한 자선 사업을 지원한다.

전단을 받은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감사의 인사와 그들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 어느 고등학교 교장은 전단의 디자인과 제작이 훌륭하며 편집과 색상이 멋지다고 칭찬했다. 그는 이 메시지가 세계 각지에 퍼져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노력에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했다. 🌸



대한민국

국군 병원에 채식과 'SOS' 메시지를 알리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원주] 채식이 이롭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강릉 국군병원 원장의 도움으로 원주 센터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13일, 200명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채식 음식 시식회를 열었다. 참석자마다 음식의 맛에 놀라워했다. 그중 한 여군은 시식회에서 먹어 본 채식 햄을 굉장히 좋아한 나머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식사가 끝난 후 동수들은 병원 강당에서 140명의 청중에게 채식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강연을 했다. 강연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기꺼이 육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다

[부산] 2월에 부산 센터 동수들은 지하철·버스 터미널·부산역·대학가 등 도심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번잡한 교차로 세 곳에 설치된 지구 온난화의 긴급성을 알리는 현수막은 많은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또 지하철역 입구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설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읽었다. 이 외 시장과 지하철 입구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SOS' 전단도



다채로운 이벤트



배포했다. 바빠 걸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 전단을 받았으며 종종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



신의 말씀을 나누는 기쁨

2월 1일, 부산 동수들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명륜보육원을 방문했다. 동수들이 어린이들에게 채식 점심을 대접하고 있을 때, 마침 보육원을 방문 중이던 10명 정도의 시의원이 식당에 들렀다가 아름답게 차려진 채식 햄구이와 잡채를 보고 우리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동수들은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 그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고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주었다. 🌸



'수프림 마스터 TV'에 대한 시사 주간지 기사

최근 시사 주간지 『위클리 피플』이 부산 동수들을 인터뷰한 후 두 페이지를 할애하여 칭하이 무상사와 스승님의 긍정적인 TV 채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1년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방송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정신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감과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세계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소식을 전파하는 데 협조해 준 『위클리 피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세계의 의식을 고양하는 데 공헌하는 그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

스승님의 사진이 인쇄된 대형 '수프림 마스터 TV' 광고판이 청주 국제공항에 설치되다. 2008년 2월 22일부터 1년간 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된다.

한국 동수들이 팔레스타인 『알하야트(Alhayat)』 신문에 '수프림 마스터 TV'를 한 달 동안 광고하다.






코틀에 영적인 씨앗이 싹트다

몽골 뉴스그룹 (원문 몽골어)

[코틀] 코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은 매주 토요일마다 칭하이 무상사의 대중 강연을 방송하고 있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코틀 센터는 지역 고등학교 교내 식당에서 일주일에 세 번 교사와 학생들에게 채식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채식으로 지구를 구하자

난터우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난터우]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난터우 센터는 황금 시대 5년(2008년) 1월 29일, 푸리(埔里)의 '새시대예술리조트'에서 '지구 온난화, 채식으로 지구를 구하자'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미항공우주국(NASA)의 기후변화 보고서 동영상을 보여 주는 한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고기 대신 채식으로 설 음식을 장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양 많은 건강 채식 설 음식을 전시했다.

당일 행사장에는 난터우 현 쉬아간(許阿甘) 의원, 난터우 현 교육감, 채식 웹사이트 수이스닷컴(Suiis.com) 린홍루이(林絃睿) 사장, 웰빙 음식 전문가 리추량(李秋涼) 씨, 정이(靜宜)대학교 강사 쟡즈한(鄭執翰) 씨, 중화국제자연의학회 이사장 황촨위안(黃川原) 박사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주임·교사, 각계 저명 인사 20명과 난터우 현 주민 80명 정도가 참석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일부 청중은 NASA 기후변화 보고서 동영상 중 얼음이 녹아서 북극 곰들이 물 속에 빠지는 장면을 보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이 동영상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채식을 하고 나무를 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신께 기도함으로써 이 전 지구적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학생 몇 명이 리조트를 참관하러 왔다가 토론의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난터우 현의원 쉬 여사는 대기 오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대중들이 좀더 자각할 수 있도록 연료세를 올리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홍루이 사장은 “채식은 우리 영성을 고양시킬 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식이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사는 지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이대학교 쟁즈한 강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오직 ‘빨리’라는 이것 하나뿐이며 모든 사람들이 즉시 행동을 취해 사랑과 일상 생활을 연계해야 합니다.”라고 일깨웠다.

토론회가 끝난 뒤 교육감들은 자신들이 자진해서 참가했으며 매우 뜻 깊은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환경 보호의 개념을 학교에 소개해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지구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길 희망했다.

또한 우리는 20가지 영양 많은 건강 비건 명절 음식을 선보였다. 또 스승님 책과 뉴스잡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기념 티셔츠, 지구 온난화와 채식에 관한 비디오, 맛있는 도시락 등을 참석자와 매체 친구들에게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내빈들의 긍정적인 논평을 받으며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이해하고 우리 이상을 매체와 대중에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올해 각급 학교와 협력해 대중들에게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구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할 계획이다. 🌸



책 기증 활동을 통해 고귀한 메시지를 전하다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신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고양시키고자 신주 센터 동수들은 책 기증 활동을 전개해 스승님의 신간과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Dr. Janez Drnovsek)의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Thoughts on Life and Consciousness)』을 영향력이 큰 교육계·매체·정계 인사들에게 기증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3일, 이 훌륭한 책들을 쟁용진(鄭永金) 신주 현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좋은 책이라면 직원들에게 많이 사 줘야겠다고 말했다. 이런 고귀한 작품들의 영향으로 통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기원한다. 🌸



신주 현 쟁용진 현장(왼쪽)이 스승님의 신간을 감사히 받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젊은 학생들이 힘을 모으다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17일, 칭화(淸華)대학교 동아리 광음회 소속 동수들은 위안페이(元培)과학기술대학교 명상회, 선장(玄奘)대학교 자제청년회와 생명사랑회, 위다(育達)과학기술대학교의 자제청년회, 중화(中華)대학교의 생명보호회 등 신주 지역 내 여러 대학교 동아리를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 학교 내에서 채식 보급과 동물 보호에 관한 도서전 행사를 개최할 방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스승님의 서적과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의 저서를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NASA의 기후변화 보고서 동영상도 상영했다.

이번 모임은 참가한 학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공통된 생각으로 뭉친 모든 참가자들은 앞으로 서로 교류하며 연합 행사를 많이 개최해 좀더 응집된 힘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자고 다짐했다.

2월 25일과 26일, 칭화대 광음회는 신주교육대학 자제청년회와 합동으로 교육대 학생회관 입구에서 채식과 환경 보호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에서는 스승님과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저서를 전시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동영상 상영하고 ‘SOS!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소책자와 ‘대안적인 삶’·‘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배포했다.

동수들은 다양한 채식 음식을 준비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맛볼 수 있게 했으며 교무처와 여러 부서 직원들에게는 전단과 채식 음식을 직접 배달해 총장과 교수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퀴즈 풀고 맛있는 음식 먹기’ 행사도 진행했다. 학생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전단을 읽고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들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



열렬한 호평을 받은 채식 향연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리후초등학교

[타이베이] 타이베이 시 네이후(內湖) 구 리후(麗湖)초등학교는 개방적인 이념을 채택할 것을 표방하는 신설 학교이다. 청렴하고 성실한 홍텐이(洪天乙) 교장은 최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에 교내 건강 채식 연회를 준비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 헌신적인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마련하는 행사였다.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22일, 우리 협회 회원들은 각종 채식 재료를 가지고 리후초등학교에 도착해 정성을 다해 20가지의 맛있고 풍성한 요리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인 동수가 채식이 개인과 지구에 가져오는 엄청난 이로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 지구가 하루빨리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황금 천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협회 회원들과 홍텐이 교장 부부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념 사진을 찍다.

“식사합시다.”라는 홍 교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이들이 열른 줄을 서서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집어들기 시작했다.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손님 가운데 시후(西湖)중학교의 리(李) 교장과 신후(新湖)초등학교의 라오(廖) 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채식 연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시후중학교

인근 산간 지역에 있는 타이베시 시 시후중학교는 주위 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학교이다. 시후중학교 리포링(李珮玲) 교장은 1월 22일, 리후초등학교에서 협회 회원들이 마련한 건강 채식 연회에 참석한 뒤, 채식이 맛도 좋고 환경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교사들과 직원들을 위한 송년 채식 연회를 위해 협회 회원들을 초빙했다.



1월 28일, 국제협회 회원들이 시후중학교에서 대접한 푸짐한 채식 요리도 전 교직원들의 사랑과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교사들 몇몇은 채식 도시락을 주문하고 싶어했으며 우리에게 행사 음식을 해 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손님으로 참석한 어느 학습 보조 기구 회사 부장은 앞으로 있을 어린이 교육·레크레이션 캠프에 채식 간식을 준비해 달라고 우리 협회에 요청했다.

고귀한 채식 생활 방식이 이 아름다운 두 학교에서 다시 한 번 싹 틔우게 해주신 신의 무한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라이 향 다구 온천회관



2월 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학계 및 정계 인사들을 초청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동시에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타이베이 현 우라이(烏來) 향 다구(答故) 온천회관에서 채식 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장, 대학 교수, 전직 우라이 향장, 국회의원, 타이베이 현의원, 원주민 대표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동수들이 준비한 30여 가지의 건강 채식 음식을 맛본 이들에게서는 맛있다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채식의 이로움을 이해하고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학생과 대중들에게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구합시다!’ 대열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길 희망한다.

다 같이 지구 온난화에 맞서 우리 지구를 구하자

올해 2월 초부터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읍시다!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구합시다!’라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갖가지 자료를 포모사 전역에 배포했다.

2월 2일, 타이베이와 신주 센터 동수들은 타이베이 현 신디엔(新店) 시 화원 신성 주택 단지에서 채식 홍보 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육식은 줄이되 채식은 많이 하고, 축산업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해악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또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08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서는 7만 부가 넘는 전단을 배포했으며 2월 15일에는 중국 전통 명절인 ‘원소절’의 점등 축제에 참가해 국부기념관과 타이베이 시청 광장의 꽃등 전시회 부근 도로에서 전단을 나눠 주었다. 한 동수는 광대 복장을 하고 ‘채식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구호가 새겨진 등을 들고 다니며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시내 버스에 광고를 게재하고 모든 동수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도록 권했다. 다행히도 이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았다. 예를 들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일을 오랫동안 후원해 온 dsopen.com의 중역 우루이야오(吳瑞璠) 씨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dsopen.com>.)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SOS-나사 기후변화 보고서’



포모사 모든 센터가 협력해 황금 시대 5년(2008년) 1월 31일부터 두 달간 포모사 서부 간선의 자창(自強)호 열차와 통근 열차 객실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SOS-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메시지를 전하는 광고물을 게재한다.



를 링크시켰다.

이런 모두의 단합된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이 위기를 저지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희망한다.



부모와 함께하는 동계 어린이 교육 캠프

핑둥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핑둥] 라이이 센터 활동·상담 팀은 겨울 방학을 이용해 센터에서 동계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환경 보호와 동물의 환경에 대해 배우고 부모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캠프가 진행된 이틀 동안 어린이들은 포모사 남부의 유명한 생태 교육 전문가들에게서 많은 지식을 배웠고 완단(萬丹) 향에 있는 '후성(護生) 개 보호소'도 참관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 동수들은 자녀들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캠프였다.



연말연시 도서 기증 활동

장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장화] 동물 사랑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장화 센터 사형사저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세 번째 경서 기증 행사를 갖고, 총 84개 학교·기관·단체에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뉴스잡지,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저서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을 기증했다. 그중 몇몇 학교 교장과 교무주임은 우리의 도서 기증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직접 동수들을 맞이해 몇 번이나 감사를 표하는 한편 동물 보호와 채식 생활 방식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물었다.



이 훌륭한 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 '칭하이데이' 축하 메시지



주지사 사무실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62706



로드 R. 블라고예비치
주지사

2008년 2월 22일

인사 말씀

일리노이 주지사로서, 저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칭하이데이'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인도주의적인 노력과 자선 활동, 예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범세계적인 사랑과 평화, 화합을 전하는 당신의 메시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희망과 영성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조화로움 속에 살게 될 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기획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을 고양시키고 깨우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도주의적 노고와 박애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격려하길 희망합니다.

일리노이 시민을 대표해 즐거움이 넘치고 잊지 못할 행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od Blagojevich

주지사 로드 R. 블라고예비치 드림

세계 각지의 동수들이 참여한 '칭하이데이' 축하 공연은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JAR_EE526.php

Feb. 22, Golden Year 5

승고한 영혼에 바치는 경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뉴스 팀 (원문 영어)

야네즈 박사의 고귀한 이상, 인류와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구를 구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열정적인 갈망에 경의를 표하며 모두가 이 대열에 동참해 우리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구와 인류, 동물을 어떻게 돌봐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2월 23일, 세계는 슬로베니아의 사랑받는 대통령이자 저명한 작가이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상을 함께 나눈 무수한 사람들의 영웅이었던 야네즈 드르노브세크(Janez Drnovsek) 박사를 잃은 슬픔에 젖었다. 이 소식을 접하신 칭하이 무상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즉시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로 향해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스승님은 대통령 궁 크리스탈 홀에서 접대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문상록에 남기셨다.

대통령님,

세상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요?

당신의 바람대로 우리 집에서 당신을 뵈고 싶었는데요.

지금 계신 곳이 더 좋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모두 당신이 그리웁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칭하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인도주의자를 추모하면서 스승님은 슬로베니아 정부 관리들과 언론계 인사들을 만나셨다. 그들 가운데에는 국회의원이자 ‘어린이 돕기 기금회(The Foundation to Help Children)’ 대표인 바르바라 즈가너 타브스(Barbara Zgajner Tavš) 여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승님은 마리보르(Maribor) 시의 불우 아동 수백 명을 돕기 위해 타브스 여사에게 1만 유로를 기부하셨다. 이 밖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ool) 아이즈톡 코르디스(Iztok Kordis) 교장에게도 1만 유로를 전달하셨다.

같은 주, 슬로베니아 최대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인 ‘24시간’에서는 평생에 걸친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세상에 대한 탁월한 업적을 다룬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방영했다. 그중에는 그의 저서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중국어판 출판 기념회 내용도 들어 있었다. 스승님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된 이 출판 기념회에서 드르노브세크 박사와 화상회의를 하신 바 있다.

스승님은 또한 자드란카 타브카르(Jadranka Tavcar) 여사(사진 1)의 인터뷰도 받으셨는데, 이 내용은 슬로베니아의 또 다른 주요 국영 방송사인 ‘슬로베니아 RTV(RTV Slovenian)’에 방송되었고 2월 26일자 『일요신문(Sunday News)』에도 보도되었다. 스승님은 이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와 동물의 권익과 영성 등의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



스승님이 국회의원인 바르바라 즈가너 타브스 여사와 학생 중심 교육을 하는 발도르프 학교 교장인 아이즈토크 코르디스 씨를 만나시는 모습.

었다. 또 여성 잡지 『오나(Ona)』와 밀교 월간지 『영성(Spiritual)』의 고정 기고자인 카타리나 트론텔리(Katarina Trontelj) 여사(사진 3)와 가진 인터뷰에서, 스승님은 우리 인간이 악업을 줄임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

유력 일간지인 『슬로베니아 뉴스(Slovenske Novice)』 기자(사진 4)의 요청으로, 스승님은 드르노브세크 대통령과 만났던 정경을 회상하시며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즉시 마음이 통해 친구가 되었어요....., 나는 그분이 현명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스승님이 대통령을 만나신 것은, 세계와 모든 인류를 위해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공헌한 그의 탁월한 노력과 깨달은 지도력을 표창하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직접 수여하시기 위해서였다.

『슬로베니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승님은, 내면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드르노브세크 박사를 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 다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엔 오직 명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스승님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목적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 위해서이며, 고요할 때 내면의 신, 또는 지성,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라고 하셨다. 나중에 마련된 슬로베니아의 유명한 작가이자 배우인 마야 갈 스트로마(Maja Gal Stromar) 여사(사진 5)와의 만남에서는 우리가 채식을 하고 내면으로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모범과 지도력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스승님은 슬로베니아 국민들이 계속해서 위대한 품성을 유지하도록 격려했다.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평화와 선험함’이라는 시에는 세상에 대한 그의 마지막 소망이 담겨 있다. 이 시는 인간의 존재에 중점을 둔 질문과 영적인 고양을 나타내는 대답이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그의 시에서 발췌한 것이다.

다. 인터뷰는 거의 4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타브카 여사는 스승님의 친절함에 크게 감명을 받고 스승님이 친자매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스승님은 채식주의자 슬로베니아 인권 옴부즈맨인 즌덴카 세바섹 트라트니크(Zdenka Cebasek Tratnik) 박사(사진 2)와도 만났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가 동물과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더 확대되길 바라는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평화.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평화로우면 충분한가?

평화롭다면 의미를 찾은 것이다.....

평화라고도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 있지 않을까?


있고말고. 선량함.

선량함?

선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 평화와 선량함만 있으면 되는가?

평화와 선량함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가족과 동료 지도자들,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한 슬로베니아 국민들에게 경의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스승님은 사랑의 말씀과 주저없는 지원으로, 함께 만난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켰고 이에 따라 누구나 드르노브세크 박사가 마지막 시에서 말한 그 '평화와 선량함'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이 슬로베니아를 방문해 드르노브세크 박사를 회고하고 경의를 표하신 방송 보도를 시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Master_Janez.php

스승님이 제2대 슬로베니아 대통령인 드르노브세크 박사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하신 방송을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530-534.php>

주요 연락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전세계 위성 정보와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http://suprememastertv.com/satellite>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만세동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임계점 기후변화의 적색 경보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구 온난화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그 긴급성과 중대성,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 광범위한 이해를 얻고 있지 못하다.

지구 환경은 정교하게 짜여진 망토와 같다. 그러나 1800년대 초부터 화석연료의 무절제한 사용, 산림 벌목, 산업화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방출된 과도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속에 갇히게 됨으로써 자연의 정교한 균형이 붕괴됐다.

최근 영국의 선도적인 기후 학자들이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전환점', 즉 지구의 기후와 환경, 서식 생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연쇄 효과를 초래할 기온 상승의 임계점에 이른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스트앵글리아 대학(University of East Anglia)의 팀 렌튼(Tim Lenton)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일 심각한 위협은 북극해의 얼음과 그린란드 대빙원(大氷原)의 임계점입니다. 그 밖에 적어도 다섯 가지의 요인들이 임계점에 가까워질 것이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렌튼 박사가 말하는 '임계점'이란, 기온이 섭씨 0.5도에서 2도 상승할 경우 그린란드의 대빙원과 북극해 빙하의 해빙이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빙하가 없어짐으로써 이 지역의 태양열 반사가 중단되어 대기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더 광범위한 해빙이 진행되고 홍수와 가뭄, 해저로부터의 유독 가스 대량 배출, 동·식물 종의 대량 멸종과 같은 자연재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지구는 그 연쇄 반응으로 인도 계절풍(몬순)이 붕괴되고 아마존 열대우림과 극북 지역 아한대림이 고사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 지구의 기온이 5℃ 이상 상승하면 더 많은 얼음이 녹아 걸잡을 수 없이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기상 패턴이 재앙 수준에 도달해 다른 종들은 물론이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것이다.

다음 지도는 렌튼 교수의 보고서에 실린 위험 지역과 빙하·대빙원의 해빙 정도를 보여 준다.

그러나 현실은, 온난화의 연쇄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에 일으키는 전단 지연(shear-lag) 효과로 인해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렌튼 교수의 계산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지구변화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Global Change)'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지구가 현재 아주 위험한 상태로 향하는 데 있어 가속도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http://www.wbgu.de/wbgu_jg2007_

전 지구적 해빙 위기

'임계점'이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 지도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어 3~5°C 상승할 경우 금세기에 도달하게 될 여러 가지 임계점 위험성을 보여 준다.

● **고도위험지역** 불확정성 최소,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
● **중간위험지역** 중간 정도의 민감성, 높은 불확정성.
● **저위험지역**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지 않음, 중간 불확정성.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Guardian/documents/2008/02/05/World_Tipping_map_0502.pdf

가 그 계산값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빨리 일어난다는 뜻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진작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기후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따뜻해지면 다른 것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다가 따뜻해지면 얼음을 녹입니다. 얼음이 있을 때는, 얼음이 열을 반사하기 때문에 바다가 그리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다가 얼음을 녹이기에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열을 반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더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구 온난화가 회복 불가능한 전환점에 다가서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후변화는 전적으로 인간 활동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경제 대책, 법률, 심지어 음식과 같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면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그렇다. 우리 음식을 새롭게 평가해 봐야 한다! 육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비효율적인 소비와 가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암모니아 같은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를 고려해 본다면, 예컨대 미국인의 육류 위주의 식단이 철저한 채식, 즉 비건 식단에 비해 1.5톤이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채식인, 비건이 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이 아름다운 행성을 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참고:

1.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8/feb/05/climatechange>
2. <http://www.telegraph.co.uk/earth/main.jhtml?xml=/earth/2008/02/05/eatip105.xml>
3. <http://www.nature.com/nature/journal/v448/n7150/full/448136a.html>
4.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2008년 2월호 (통권 298호) 60쪽 (<http://www.sciam.com/article.cfm?id=the-unquiet-ice>)

급속도로 녹는 얼음 급속도로 변하는 기후

북극의 빙하는 태양열의 80%를 반사해 해수 온도를 차갑게 유지시킨다.

미 항공우주국 (NASA) 기후학자인 제이 조왈리는 2007년 12월 보고서에 인용된 최신 위성 정보를 근거로, 2012년 늦여름에 북극해의 거의 모든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녹아버리면 바다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바다에서 가스가 방출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바다에서 나온 가스에 중독될 겁니다. 바다 속에는 모두를 죽일만한 엄청난 가스가 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 강연(1995년 1월 10일)에서 이미 우리가 생활방식을 바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제 10년, 15년 전 얘기였어요. 그 전에도 난 우리가 얼마나 지구의 삼림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말해 왔습니다. 육식과 온갖 일들이 우리 행성에 크나큰 손상을 입히고 있지요.

과학자들은 많은 것을 알리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어서 빨리 움직이길 바랍니다.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전세계 모든 정부가 이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너무 느릴까 걱정될 따름입니다.

빙하는 태양빛을 반사해 우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현재 빙하가 아주 빨리 녹고 있어 충분히 반사해 내지 못하고 있고, 또 바다가 따뜻해진 탓에 얼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바다가 더 따뜻해지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악순환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4, 5년 후엔 끝납니다. 상황은 그 정도로 정말 긴급합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세계적인 인도주의자, 예술가, 영적 스승
2007년 12월 25일 파리 세미나

<긴급 퀴즈>

우리 지구를 구하려면?

1. 채식을 한다
2. 바이오 연료나 하이브리드 차를 탄다
3.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
4. 재생 에너지로 바꾼다
5. 기도한다

녹는 얼음 1 + 1 = 2

생명과 지구를 구하자

• 시카고대 지질학 교수인 기온 이셀과 파멜라 마틴의 연구 결과, 1년간의 완전 채식이 미국인의 표준식단에 비해 1.5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며, 이는 SUV차량을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는 것보다 50%나 높은 수치임.

• "고기를 먹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검소한 소비를 하면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 라렌드라 파차우리 -

• 영국 에너지 절약재단(Britain's Energy Saving Trust)는 환경 보존 방식을 사용해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약 6톤의 온실가스를 1/3 줄이도록 권고함.

북극 빙하 (2007년 9월)

- 종전 최저 기록보다 23% 감소 (NASA 위성 자료)
- 1950년보다 50% 감소 (선상 자료)

다른 기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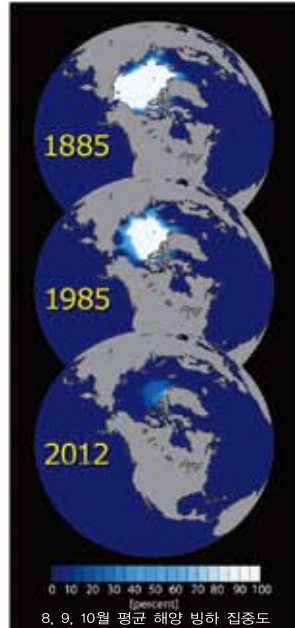
- 그린란드 표면 빙하는 15년 전보다 400% 감소함.
- 북극 표면 온도는 77년간의 기록 가운데 최고치.

희망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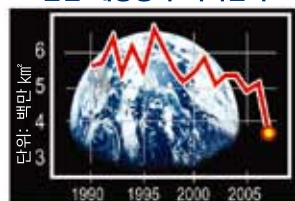
NASA 수석 기후학자 제임스 헨슨: "우리는 전환점을 넘어섰지만 돌아오지 못할 지점을 넘기진 않았다. 아직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더 많은 긴급 정보를 보시려면:

www.SupremeMasterTV.com/kr



연간 해양빙하 최저면적



“우리는 우선
이 지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SOS
채식 하세요!
환경 보호하세요!

경고 신호

- 2007년 자연재해 관련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자연재해 중 10개 중 9개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것임.
- 파푸아뉴기니 정부 관리들은 지난 2000년, 근해에 위치한 듀크 오브 요크 섬의 최저지대에서 2만 명의 섬 주민들을 이주시킴.
- 어류 남획 및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천만의 정어리의 유실로 서남 아프리카의 근해는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음. 이로써 미국 뉴저지 주 면적의 해역에서 해양 생물들이 죽고 온실효과가 악화됨.
- 호주 해양학자 스티브 린틀 박사는 빠르게 녹는 빙하로 해발 1미터 이하에 거주하는 1억 인구가 해수면 상승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함



더 많은 긴급 정보를 보시려면: www.SupremeMasterTV.com/kr

수프림 마스터 TV

검색

질문자: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청하이 무상사: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지구의 식생활을 바꾸고 즉시 신기술과 재생 에너지를 채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채식인이나 비건 (유제품도 금하는 채식주의)이 되어 숭수범해야 합니다. 그들의 강한 힘을 발휘해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식생활인 채식을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청하이 무상사:

지도자들이 먼저 채식을 해야 하고, 그래야 힘을 올바르게 행사합니다. 그들은 또한 육식이 인류와 지구에 끼치는 모든 해악을 알려 육식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담배나 마약을 금하듯이 육식을 금지하는 겁니다. 육식도 종류만 다를 뿐 해로운 마약이니까요.

나는 이 지구가 계속 존재해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인류에게 달렸습니다.

질문자:

스승님, 가족 사육이 온실가스 발생의 주된 원인이므로 채식이 해결책 같습니다만, 채식으로 충분할지요?

청하이 무상사:

아닙니다. 난 채식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술도 변해야 합니다. 채식을 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나무를 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지요? 채식은 업장(나쁜 응보)을 줄이고 천국의 은총을 얻기에 장기적으로 유익합니다.

질문자:

스승님, 전세계에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하이 무상사:

내가 그들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긴급 정보를 보시려면: www.SupremeMasterTV.com/kr

출처: 나사(NASA) 자료

2008년 1월 20일: 청하이 무상사는 수프림 마스터 TV 스태프의 엄려에 부응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위한 화상회의에 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 여러분의 음식을 바꾸세요 ♥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 건강해지고 사랑을 베푸세요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영양이 풍부하고 생명을 구하는 음식의 예:

음 식	단백질 함량(중량 백분율)
두부 (원료: 콩)	16 %
글루텐 (원료: 밀가루)	70 %
옥수수	13 %
쌀	8.6 %
대두, 강낭콩, 병아리콩, 렌즈콩 등	10 - 35 %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헤이즐넛, 잣 등	14 - 30 %
호박씨, 참깨, 해바라기씨 등	18 - 24 %

농축 종합 비타민 정제/캡슐 또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들 두루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과일과 야채는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이 풍부하며, 고품질의 섬유질이 들어 있어 건강 유지와 장수에 좋습니다.

일일 단백질 권장량: 50그램 (일반 성인 기준)

식물성 칼슘은 우유의 칼슘보다 흡수력이 더 좋습니다.

- 조류독감으로 인한 전세계적 유행병의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려면,
- 광우병 및 돼지 질병(PMWS 증후군)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축들, 해양 생물, 조류 친구들이 매일 수십억씩 계속해서 끔찍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면,

평생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식은 건강입니다 채식은 자비입니다

채식은 경제입니다 채식은 평화입니다

채식은 생태입니다 채식은 숭고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우리 생명을
구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안적인 삶 홈페이지(www.GodsDirectContact.or.kr/al)

E-Mail: AL@GodsDirectContact.or.kr

생명사랑 채식실천협회(www.bevege.or.kr)

한국 채식연합(www.vege.or.kr)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방송

14개의 위성과 온라인 www.SupremeMasterTV.com/kr 에서 시청하세요.

Galaxy 25, Hispasat, Intelsat 907, ABS, Astra 1, AsiaSat 2, AsiaSat 3S, Sky TV
Intelsat 10 C-Band, Intelsat 10 KU-Band, Optus D2, Eurobird 1, Eurobird 2, Hotbird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식주의:

철학자, 영적 지도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인도의 영적 교사), 소크라테스(그리스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 공자, 석가모니불, 노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이탈리아의 카톨릭 성자), 틱날타(베트남 불교승려, 작가), 요기 마하리쉬 마헤쉬(인도의 초월명상 지도자), 레오 톨스토이(러시아 철학자), 피타고라스(그리스 수학자, 철학자), 짜라투스트라(이란의 조로아스터교 창시자), 무하마드 라힘 바와 무하야이딘(스리랑카 이슬람 작가, 수피 성인) 등

작가,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이탈리아 화가), 랄프 왈도 에머슨(미국 수필가, 시인), 조지 버너드 쇼(아일랜드 극작가), 존 로빈슨(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미국 작가), 알버트 슈바이처(독일 철학자, 의사, 음악가), 볼테르(프랑스 작가), 사데크 헤다아트(이란 작가) 등

과학자, 발명가, 엔지니어: 찰스 다윈(영국 자연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독일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미국 과학자, 발명가), 아이작 뉴턴(영국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세르비아계 미국 과학자, 발명가), 헨리 포드(미국 포드 자동차 창립자) 등

정치가, 사회운동가: 수잔 B. 안토니(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인도 인권 지도자), 코레타 스콧 킹(미국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부인), 아녜스 드르 노프세크 박사(슬로베니아 제 2대 대통령), 만모한 싱(인도 총리), 데니스 J. 쿠퍼니치(미국 하원의원) 등

배우, 모델: 파멜라 앤더슨(미국 여배우), 애슐리 휴즈(미국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프랑스 여배우), 존 클리즈(영국 배우), 데이비드 듀코브니(미국 배우), 대니 드비토(미국 배우), 리처드 기어(미국 배우), 대릴 한나(미국 여배우), 더스틴 호프만(미국 배우), 스티브 마틴(미국 배우), 이안 맥캘런(영국 배우), 토비 맥과이어(미국 배우), 폴 뉴먼(미국 배우), 호아킨 페닉스(미국 배우), 스티븐 시걸(미국 배우), 제리 세인펠드(미국 배우), 니오미 왓츠(호주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영국 여배우) 크리스틴 브링클리(미국 슈퍼모델), 크리스티 탈링턴(미국 슈퍼모델) 등

음악가: 조지 해리슨, 폴 매카트니, 링고 스타(비틀즈 멤버), 밥 딜런(미국 음악가), 마이클 잭슨(미국 팝스타), 모리세이(영국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영국계 호주 가수), 시너드 오코너(아일랜드 가수), 핑크(미국 가수), 프린스(미국 팝스타), 티나 터너(미국 팝스타), 샤니아 트웨인(캐나다 가수), 바네사 윌리엄스(미국 팝가수) 등

유명 스포츠인: 빌리 킨(미국 테니스 챔피언), 빌 윌튼(미국 농구선수), 칼 루이스(올림픽 육상 9관왕), 에드윈 모세스(미국 올림픽 육상 2관왕), 알렉산더 다르가츠(독일 육상선수, 보디빌딩 챔피언, 의사) 등. www.GodsDirectContact.or.kr/vg~vip 에서 더 많은 채식 유명인사의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긴급 정보를 보시려면: www.SupremeMasterTV.com/kr

수프림 마스터 TV


검색



빛나는 세계 영웅상

세계 곳곳에서 인정 넘치는 행동과 신의 성스러운 사랑의 현시를 볼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일과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세상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더해 준다. 이러한 덕행을 표창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하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비롯한 일련의 상을 제정하였다. 귀감이 되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정부·단체, 자비롭고 용감한 동물 친구들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모든 존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그들의 훌륭한 이상에 대한 찬탄과 감사를 나타낸다. 하트 평점은 인류에게 모든 존재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도록 상기시키는 신의 사랑을 상징한다.

본능적인 사랑의 실천


미국 새너제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록클린(Rocklin)에 사는 클라우드 워커(Claude Walker) 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선행으로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22일,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받았다. 2007년 12월 3일, 클라우드 워커 씨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삼축 트럭 한 대가 길 옆에 전복되어 불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기사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본 그는 즉시 달려가 불타고 있는 차량에서 그 기사를 끌어 냈다. 워커 씨는 자신의 안전은 한순간도 생각지 않고 그저 너무 늦기 전에 기사를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스승님을 대신해 새크라멘토 센터의 협회 회원들이 워커 씨네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을 수여했다. 상패 외에 영웅 재킷과 스승님의 출판물, 초콜릿, 현지 채식 식당 이용권 3장 등의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상을 받고 나서 워커 씨는 스승님께 다음과 같은 감사 편지를 보냈다. “저는 그 행동으

로 이 모든 것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영웅적이라거나 용감한 것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단체는 이 이야기에 제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남에게 하는 대로 돌아오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멋진 선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워커 씨의 용기와 사심 없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텍스코코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일 곱 아이의 아버지인 마누엘 지저스 코르도바 소베라네스 (Manuel Jesus Cordoba Soberanes) 씨는 교통 사고로 엄
마를 잃은 아홉 살 된 미국 어린이인 크리스토퍼(Christopher Bu-
chleitner)를 구한 행동으로 최근 멕시코와 미국 당국으로부터 표
창을 받았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2일, 26세의 마누엘 지저스는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미국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멕시코 북부 도시 막달레나데키노(Magdalena de Kino)에서 미국으로 가던 중 페냐블랑카(Pena Blanca) 호수 근처의 시골 도로에서 이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차에 갇혀서 구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던 여정을 포기하고 추운 밤 동안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 주었다. 그는 멕시코로 돌려보내질 것임을 알면서도 당국이 도착

그의 사심 없는 선행에 애리조나 주 제7 선거구 국회의원이 그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미국 의회에 제안했다.

12월 29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코르도바 씨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했다. 그에게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읽어 주자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으로 빛났다. 그의 가족은 상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에게 감사했고 미화 1,000달러의 상금과 스승님 책 몇 권을 기쁘게 받았다. 그날 밤을 떠올리면서 마누엘 지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기에서 다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마누엘 지저스 씨와 그의 가족.

코르도바 씨의 자비심과 사심 없는 행동에 감사하며 천국의 축복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듬뿍 쏟아지기를 기원한다. 추운 겨울 밤에 한 어린 소년에게 베풀었던 그의 사랑처럼, 그에게도 신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스승님이 미화 1,000달러의 상금을 주신 데 대해 마뉴엘 지저스 씨가 보내온 감사 편지.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쿠라나 여사가 설립한 기차길 학교 ♥♥♥♥♥♥♥♥♥♥♥♥♥♥♥♥

미국 새너제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9일, 인도 오리사(Orissa) 지역에 있는 ‘루치카 사회봉사단(Ruchika Social Service Organization, RSSO)’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인데르지트 쿠라나(Inderjit Khurana) 여사가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과 미화 5천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쿠라나 여사는 북인도의 오리사 주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시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매일 기차로 통근하면서 기차역 승강장에서 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보았다. 이들은 그녀의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녀는 가난하지만 고귀한 영혼을 가진 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차역 승강장에 학교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바네스와르 철도역 승강장은 그녀의 노력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그녀는 노래와 춤, 게임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배움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냈다. 1985년, 이 최초의 노력이 ‘루치카 사회봉사단’으로 꽃 피우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봉사단 덕분에 현재 인도에는 100개가 넘는 승강장 학교가 운영되어 4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은 읽기와 쓰기, 산수를 배울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와 영양 방면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



미화 5천 달러에 대한 쿠라나 여사의 감사 편지.



쿠라나 여사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겼으며 자신의 작은 단체가 칭하이 무상사와 같은 깨달은 스승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에 감동을 받으며 또 그 덕분에 이 고귀한 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덧붙여서 “내가 이 한 몸을 바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말고 이 세상에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쿠라나 여사는 그녀의 힘 없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는, 말 그대로 영웅이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포커 플레이어 토니 구오가 ♥♥♥♥♥♥♥♥♥♥♥♥♥♥♥♥

호주 멜버른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13일, 멜버른 센터 동수들은 토니 구오가(Tony Guoga) 씨에게 스승님의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토니 씨는 최근 모스크바 밀리언 포커 경기(Moscow Millions poker tournament)에서 받은 미화 20만 5천 달러의 상금 전액을 모스크바에 있는 120명의 고아들을 위해 흔쾌히 기부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니 구오가 씨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재능 있는 포커 선수로서 현재 자연과 가까운 멜버른 해변에서 살고 있다. 시상식에서 토니 씨는 칭하이 무상사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강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도움으로 생활이 개선된 아이들을 만나 보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토니 씨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아주 감동하고 영광스러워했으며 스승님의 출판물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받고선 매우 감격했다.



동수들은 고귀한 일에 헌신함으로써 세계적인 본보기가 되어 준 이들에게 스승님을 대신해 상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러워했다. 🌸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URL주소를 참고하세요.
'이달의 수상자'를 비롯해 지난 수년간의 시상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gv/>



빛나는 세계 자비상

한나 테일러 ♥♥♥♥♥♥♥♥♥♥ 위대한 자비심을 가진 소녀

캐나다 밴쿠버 뉴스그룹 (원문 영어)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최선을 다해 실천한다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한나 테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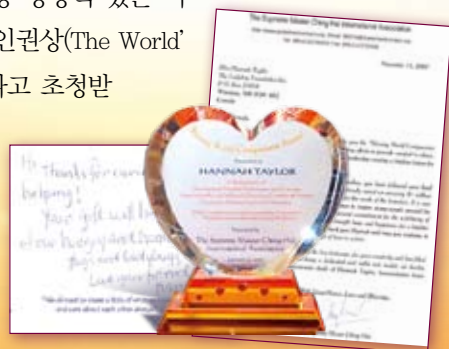


한나 테일러(Hannah Taylor)는 캐나다 위니펙(Winnipeg)에 살고 있는 12세 소녀이다. 그녀는 다섯 살 때, 한 노숙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노숙자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러 번 설명해 준 뒤 한나에게 그들을 돕는 일을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바로 그 다음날 한나는 자신의 1학년 선생님에게 학급에서 노숙자에 대해 발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로 인해 영감을 받은 반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미술 작품과 구운 빵을 팔고 옷을 기부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그 지역의 노숙자 쉼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섯 살이 되었을 때, 한나는 노숙자를 돕기 위한 ‘무당벌레재단(Ladybug Foundation)’을 설립했다. 무당벌레가 행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행운을 노숙자 친구들에게 전해 주고 싶었다. 언젠가 한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노숙자들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나 나와 똑같으며 단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무당벌레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노숙자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그들을 도울 기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전적으로, 모든 이가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한나의 사랑의 비전에 영감을 받은 지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는 다른 이들의 삶에 뜻 깊은 기여를 한 2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2007년 브릭상(Brick Award)을 비롯해 많은 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최연소 수상자로 캐나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그녀는 앞으로 7년 동안 ‘세계아동인권상(The World’s Children’s Prize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수상자들과 함께 일해 달라고 초청받았다.

한나의 사랑의 정신과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 들으신 칭하이 무상사는 즉시 이 자비로운 소녀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과 5천 캐나다 달러를 수여해 노숙자들에 대한 그녀의 고귀한 봉사를 지지했다.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에 상과 선물을 받은 한나가 감사 카드를 보냈었다.



빛나는 세계 자비상



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물은 아주 많은 배고픈 노숙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무당벌레와 포옹을 보냅니다. 사랑과 함께. 당신의 친구 한나 드림.”

모두가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갖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돕는 한나의 사랑 어린 마음과 헌신에 감사한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편안함을 가져다주려는 그녀의 고귀한 노력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빈다! 🌸

한나와 그녀의 재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ladybugfoundation.ca/>

압둘 사타르 에디 ♥♥♥♥♥♥♥♥♥♥♥♥ 파키스탄 카라치의 마더 테레사

미국 뉴욕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압둘 사타르 에디(Abdul Sattar Edhi)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흔들림 없는 헌신과 겸손한 행동으로 파키스탄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에디 씨는 약한 몸에 정신 질환을 앓았던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동안 돌보았다. 그때 그는 병이 들어어도 의료 자원이 없거나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디 씨는 가족과 함께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후 자선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진실된 친절과 인류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자비의 천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선행으로 많은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으며, 그 상금으로 자선 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갔다. 마침내는 ‘에디 신탁(the Edhi Trust)’이라는 복지 시스템을 설립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방면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는 카라치(Karachi) 시 최초로 구급차 서비스 센터와 산부인과병원을 설립했다. 에디 씨의 비전과 헌신 속에 그의 자선 활동은 끊임없이 성장해 국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인종·신앙·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압둘 사타르 에디 씨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하는 한편 미화 5천 달러도 전달해 인류에 대한 그의 고귀한 봉사를 지지했다. 시상식은 에디 씨가 그의 재단 국제 사무소를 방문 중이던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19일 뉴욕에서 거행되었다. 시상식에서 그의 통역이 그를 대신해 연설문을 읽었다. 에디 씨는 자신의 모든 삶을 안배하고 인도해 준 알라께 감사드렸다. 그는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 자신을 인정해 준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상금을 자선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구상하고 있는 계획 중 하나인 뉴욕의 노숙자 쉼터 건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파키스탄의 대중 매체와 ‘디






빛나는 세계 자비상



스승님이 보내신 미화 5천 달러에 대한 '국제 애타들 사타르 에디 재단'의 영수증.

지털방송 네트워크(Digital Broadcast Networking)', 가장 인기 있는 파키스탄 주간지 『뉴욕 아람(New York Awam)』, '미국 지오 TV(Geo TV USA)', '인더스 TV(Indus TV)'도 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카라치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고 있는 압둘 사타르 에디 씨는 그의 고귀한 삶과 봉사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빛나는 모범이 되고 있다. 알라의 전능한 힘이 그와 그의 고귀한 활동을 계속 축복해 주시길 기원한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난 20년간 엘레노어 홀(Eleanor Hall) 여사는 크나큰 모성애로 15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중 여덟 명을 정식 입양했다. 찰리 크리스트(Charlie Crist) 플로리다 주지사는 그녀의 모범적인 공익 봉사 활동을 인정해 ‘등불상(Point of Light)’을 수여했다. 그녀는 또한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18일,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홀 여사가 입양한 아이들과 직원, 지역 매체가 참석한 가운데 바토(Bartow)에 있는 ‘어린이 중심 지대(Heartland for Children)’에서 열렸다.


홀 여사는 기쁜 모습으로 플로리다 센터의 국제협회 회원들로부터 수정 상패를 받고선 무척 영광스럽다고 하면서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보여 준 그녀의 모든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스승님이 주신 미화 5천 달러의 상금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비롯한 스승님의 출판물도 전달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홀 여사는 전업 교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랑과 관심, 보살핌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녀는 모든 소년소녀들을 자기 아이처럼 사



홀 여사와 그녀가 입양한 아이들.



랑했다. 입양한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는, 이 자애롭고 완전히 헌신적인 여인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스승님이 보내신 미화 5천 달러에 대한 홀 여사의 영수증.



WALTER S. BOWEN Building
 The Walter S. Bowen Building is a new addition to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It is a modern building with a large atrium and a glass facade. The building is named in honor of Walter S. Bowen, a former Chancellor of the University.

TOMMY BLATTMANN
 "The Doctor's House"
 The Tommy Blattmann Building is a new addition to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It is a modern building with a large atrium and a glass facade. The building is named in honor of Tommy Blattmann, a former Chancellor of the University.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영어)

A group of people are walking across a suspension bridge over a river. The bridge is made of wooden planks and has ropes for support. The river is in the foreground, and there are trees and hills in the background.

인류에 대한 고귀

[illegible][illegible]



빛나는 세계 자비상

수단 잃어버린 소년들의 어머니 ♥♥♥♥♥♥♥♥♥♥♥♥♥♥♥♥

미국 애리조나 뉴스그룹 (원문 영어)



찬란한 미소와 반짝이는 은발이 멋진 레이타 헛슨(Reita Hutson) 여사는 수단 내전(1984-2005)으로 인해 집과 부모를 잃은 2만 7천 명이 넘는 소년들을 지칭하는 ‘수단의 잃어버린 소년들’ 중 400명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그들에게 있어 헛슨 여사는 사랑의 근원이며 그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은인이다.

마을이 파괴된 후 집에서 피신해야 했던 ‘잃어버린 소년들’에 관한 이야기가 1990년대 말에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수년간 이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수천 마일을 맨발로 여행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보호했다. 수천 명이 죽어간 그 여행 끝에 마침내 난민 캠프에 도착한 그들은 매일 1갤런의 물과 형편없는 식사에 의존하며 9년을 살아남았다.

미국 정부는 이 소년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된 후 수천 명의 미국 재정착을 도왔으며 그중 400명이 애리조나로 가게 되었다. 방송을 통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레이타 헛슨 여사는 너무나 가슴아파하며 그들을 돕기로 맹세했다. 그후 우연찮게 이웃 식료품 가게에서 ‘잃어버린 소년’이었던 한 청년을 만났다. 이 만남으로 인해 애리조나의 모든 잃어버린 소년들에게 교육과 치료 진료를 제공하는 그녀의 고귀한 사명이 시작되었다. 이제 ‘가브리엘’의 이름을 가지게 된 그 청년의 이름을 따서 헛슨 여사는 자신의 단체를 ‘가브리엘의 꿈-수단 잃어버린 소년들을 위한 자선 단체 (Gabriel's Dream: A Charity for Sudan's Lost Boys)’라고 이름 지었다.

‘잃어버린 소년들’에 대한 헛슨 여사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알게 된 칭하이 무상사는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하고 그녀의 고귀한 일을 후원하고자 미화 1만 달러를 전달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0일,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Scottsdale)에서 레이타 헛슨과 가브리엘은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상을 받았다. 가브리엘은



이제 막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대학도 곧 졸업할 예정이다. 그의 꿈은 다른 이들이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연설가가 되는 것이다. 헛슨 여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소년들’이 우리 삶에 선사된 선물이며, 그들을 도울 때 정말 우리 영혼이 고양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이에게 베풀 때 무한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스승님이 보내신 미화 1만 달러에 대한 ‘가브리엘의 꿈-수단 잃어버린 소년들을 위한 자선 단체’가 보내온 감사 편지.



공기 자동차 혁명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구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꿈꾸는 자동차인 공기 자동차가 드디어 등장해 전세계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름 그대로 공기 자동차는 공기로 달리는 승용차이다. 석유가 필요 없는 이 놀라운 친환경 과학 기술의 산물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배기관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은 찬 공기뿐이다. 이 혁명적인 자동차는 전직 경주용 자동차 기술자였던 가이 네그르(Guy Nègre) 씨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거의 20년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공기 자동차 시작품을 제작한 끝에 현재와 같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춘 최신 모델 시티캣(cityCAT)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시티캣은 최대 시속 68마일(122km)로 125마일(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 자동차는 압축 공기만으로 달린다. 압축 공기가 피스톤을 구동시키면 차가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찬 공기는 에어컨 시스템에 재활용돼 승객들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공기 자동차는 여러 주유소에 설치된 특수한 공기 압축기로 단돈 2달러에 2, 3분이면 연료를 충전할 수 있다. 오늘날 휘발유·원유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이 자동차는 가정에서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

신형 '시티캣' 34호 엔진에는 새로운 성능이 추가되어 감속할 때 공기를 새로 압축할 수 있게 돼 있다. 말하자면 속도를 늦추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그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 탱크를 재충전한다는 말이다. 네그르 씨의 회사인 '국제엔진개발(Moteur Development International, MDI)'은 현재 연료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 압축 기술과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자동차는 한번 연료를 채우면 3,000마일(4,8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회사인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이미 이 황금시대의 신기술을 채택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은 2008년도에 적어도 6,000대의 공기 자동차가 인도의 도로를 달리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네그르 씨는 이미 미국·독일·남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12개 국가의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진정한 황금시대의 교통수단인 이 차는 곧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공기 자동차는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보다 환경에 대한 타격이 적으며 싸고 안전하다. 이 놀라운 자동차가 전세계 모든 나라에 보급되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우리의 귀중한 지구를 온난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를 바란다. 

이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mdi.lu

참고:

1. http://www.popularmechanics.com/automotive/new_cars/4217016.html
2. http://en.wikipedia.org/wiki/Air_Car
3. <http://green.yahoo.com/blog/ecogeek/66/air-car-ready-for-mass-production.html>
4.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news/179/ga_24.htm
5. <http://ZeroPollutionMotors.us/>
6. <http://www.gizmag.com/go/7000/>

부자 인연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미국 오하이오 데이비드 사형 (원문 영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태복음 18:5)”



최 근 한 미군이 체험한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일깨워 준다. 스코트 사우스워스(Scott Southworth) 대위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동안 한 고아원에서 만난 신체 장애 소년과의 인연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의 전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소년은 곧 대위를 다정하게 ‘바바’라고 불렀다. ‘바바’는 ‘아빠’라는 뜻의 아랍어이다. 소년의 신체적 장애도 그의 선량하고 영적인 마음이 발산하는 빛을 가릴 순 없었다. 그의 이름은 알라(Ala'a)인데 ‘신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어느 날 사우스워스 대위는 알라가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알라의 영원한 아빠가 되고 싶어한다는 걸 깨달았다.

긴 입양 과정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알라와 마찬가지로 스코트 씨 또한 영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던 터라 그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종종 기도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의 어머니가 해주신 “신께서 일하게 하라.”라는 현명한 충고도 마음에 새겼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국토안전국(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인도적 입국’ 사유에 따라 알라를 입양하려는 그의 자비로운 소망을 흔쾌히 승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알라를 만나기 위해 즉시 비행기 표를 구입한 뒤 스코트 대위는 안도하며 말했다. “이제는 그 아이를 껴안고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알라와 스코트 대위가 재회한 뒤로 두 사람의 상황은 아주 순조롭게 풀렸다. 알라는 무료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새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고, 스코트 대위는 사람들이 이라크의 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종교·정치·지역은 달라도 우리 모두 지구 가족의 일원임을 보여 준다. 스코트 대위와 알라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며, 또한 모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든 신의 사랑이 세상에



더 많은 빛과 사랑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

참고:

http://www.cnn.com/2007/US/12/23/saving.orphans.ap/index.html?section=cnn_latest



다시 굿윈 - 진실로 마음을 감화시키는 존재

호주 노던리버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난 17년 동안 다시 굿윈(Darcy Goodwin)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 있는 노던리버스(Northern Rivers) 지역에서 혼자서 자신의 밴을 이용한 이동식 수프 급식소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채식 식사를 제공해 왔다.

80세의 고령인 다시 씨는 75년 넘게 채식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6일과 만나절, 1년 52주 내내 집 근처 마을에서 봉사할 만큼 아주 정정하다. 음식을 배급하지 않는 만나절은 다음 주를 위한 준비에 쓰인다! 다시 씨는 지역의 과일 가게와 빵집에서 너무 잘 익은 과일이나 하루가 지난 식품을 기부받아 음식을 준비한 다음 적당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음식을 나눠 준 뒤 다시 이동 급식소를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 대부분을 보낸다. 그는 또한 좀더 먼 벽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꾸러미와 가구를 직접 배달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게서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씨는 그저 동포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기쁨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의 밴에는 '관심은 나누는 것'이라는 좌우명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그는 그 누구와도, 특히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사실 다시 씨는 여러 해 동안 지켜본 결과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으며 그들이 매우 예의 바르고 겸손했다고 종종 말한다.

다시 씨는 '다섯 덩이의 빵'이라는 '이동식 수프 급식소'를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했다. 그는 거리 봉사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었다고 말한다. 지난 수년 동안 다시 씨는 그 무아의 봉사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수여하는 많은 상을 받았지만,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정부 기관이나 복지 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도움도 받지 않는다.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북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재난 구호 팀은 운 좋게도 다시 씨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은 가정에 식품 꾸러미를 전달할 수 있었다. 다시 씨 자신도 최근 배달하러 나갔다

가 홍수 피해를 입어 댐을 수리해야 했는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그의 댐이 다시 길 위를 달리도록 기쁜 마음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 다시 씨는 스승님의 관대함에 무척 감동하며 감사히 여겼다.

다시 굿윈 씨는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살아 있는 본보기이다. 우리 모두 그의 자비로움과 무아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



영혼의 고양



商品搜尋

SEARCH

에 덴동산(<http://www.EdenRules.com>)과 천상의 상점(<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면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과 음악 창작집 목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MP3(오디오 파일)와 MP4(비디오 파일)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미리 듣거나 보신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다운로드 용)

No. 37-2 (중국어)

‘하나’를 얻으면 도를 얻는다

1989. 1. 27. 포모사 평후 강연

No. 116 (중국어)

복을 짓는 것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

1990. 3. 3. 포모사 타이베이 강연

No. 119 (중국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

1990. 3. 15. 포모사 타이난 강연

No. 120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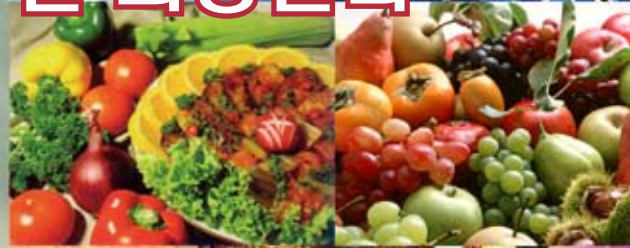
32호상(好相)에 대한 농담

1990. 3. 16. 포모사 타이난 강연





새해에는 지구의 미래를 바꾸길 희망한다



칭하이 무상사/ 2008. 2. 7.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스태프들과의 전화 회의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2월 7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스태프들은 칭하이 무상사와의 전화 회의를 허락받고 기쁨에 넘쳤다. 이 회의에서 스승님은 동수들과 음력설을 맞아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며, 또한 지구 온난화에 관한 청중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답해 주셨다.

매체는 지구 온난화의 진실을 전파해야 한다

질문: 스승님, 매체는 우리 행성에서 일어나는 이 기후변화의 시급한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올해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 중요한 소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당신의 질문에 대한 내 짧은 소견을 말하자면, 매체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기후변화의 긴박성에 대해 알리는 한편 이를 저지할 모든 방법도 널리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체가 그런 노력을 해준다면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 인사부터 하겠



습니다. (대중 박수)

지구를 구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 계율

질문: 지구를 확실히 구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목표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승님: '5계'를 주겠습니다. 첫째, 신을 기억하고 천국의 자비를 기도하십시오. 둘째, 모든 동물성 제품을 피하세요. 셋째, 사람이건 동물이건 살아 있는 존재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넷째,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절약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생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노력이 지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질문: 존경하는 스승님, 이번 새해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 음, 그건 인류의 결정에 달렸어요. 그러나 확실히 곳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국가와 단체, 개인들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신속히 대처하는 노력이 확연히 보입니다. 여러분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일하고 있으니 분명 알고 있겠지요! 매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혹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 위협을 멈추기 위해 훨씬 더 빠르고 많은 활동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신속하게 더 많은 행동이 취해지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협력해 지구에 대한 우리 꿈을 실현시키자

질문: 가장 자비로우신 스승님, 다가오는 해에 스승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내가 바라는 건 모든 전쟁을 멈추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구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 인류가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또 서로 힘을 합쳐 진지하고 열심히 노력해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의 은총과 자비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겠지요.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다가오는 새해에 전하실 메시지나 저희에게 일깨워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스승님: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본부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곳곳에서 돕고 있는 모든 이들과 정신적·감정적·물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대중 박수) 여러분은 유익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동포들에게 선하고 자비로워지라고, 지구를 보호하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아주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전할 메시지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그 고귀한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무조건적인 헌신은 우리 삶에서 견지해야 할 유일한 방식이니까요. 그건 다른 이들에게 가장 큰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또한 우리 삶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물었으니 말인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축하입니다. 내가 아는 한 여러분은 세계 최

고의 텔레비전 채널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보내는 메시지

질문: 전 그냥 스승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스승님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동물들이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음력설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력설을 맞이해 어떤 소망을 빌까요?

스승님: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동물들은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신과, 그들이 지구에서 살아갈 특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중한 생명을 유지하여 그들이 지닌 사랑과 영적인 자질로 우리 지구와 세상을 축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며 여전히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군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지구의 안전을 위해 고귀한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하라

질문: 스승님, 사람들이 말하길 지금 태어나는 많은 아기들은 더 진화되고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지니게 될까요? 지금 세상에는 해탈한 영혼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스승님: 예, 영적으로 더욱 진화된 존재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 지구에 좋은 일이지요. 이 지구가 계속 존재한다면요.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행성은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모두들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관한 보도를 봤을 테니까요. 달조차 우리 지구만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지구는 아주 희귀한 선물이자 대단히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이 행성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모든 공동 거주자들의 특별한 공덕 덕분입니다. 열거하자면 인간과 동물, 심지어 광물과 식물, 나 무까지도 포함되지요.

그러므로 정말 이 행성을 소중히 여긴다면 함께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공덕으로써 유지시켜야만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존재들이 우리 행성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귀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행성을 보존해 그들을 맞이할 수 있지요.

많은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

질문: 다가오는 새해에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과 채식, 과학 기술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스승님: 사실 거창할 게 없어요. 걸음마만 몇 발자국 떼면 되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더 고귀하고 더 멋진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식생활을 채식이나 비건으로 바꾸고 빠른 시일 내에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몇 그루씩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건 다 쉽지 않나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수단과 지성, 뛰어난 과학적 재능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신년 계획도 식



은 죽 먹듯 아주 쉽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도하는 건 흥미롭고 재미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엔 아주 쉬운 일 같아요!

다른 은하계 친구들의 축복

질문: 스승님, 은하계 다른 행성의 존재들이 우리 지구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은하계에 있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 어떤 행성들은 올해 쥐띠 해 음력설을 맞이해 최고의 축복과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아! 그들은 모르는 게 없거든요! 어떤 행성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이 세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행성들은 우리 모두 서로 연결돼 있으니 지구의 모든 거주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엔 지구 온난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가 평화롭고 우호적으로 자신들과 만날 때까지 이곳에 생명체가 존속하고 진보하길 바랍니다. (대중 박수)

어떤 행성은 현재 지구인들이 자신들과 많이 소통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더욱더 내면에 집중해 전쟁을 줄이고 사랑이 많아진다면 머지않아 가능할 겁니다.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채식을 하자!

질문: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물론 IPCC 의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위원장이니까요. 그는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이 임명한 위원장이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 외 누가 더 권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겠어요? 확실히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옳다고 입증됐습니다. 어쨌든 지구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비건(채란, 유제품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더 자비롭고 더 고귀한 생활 방식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인류에게 더 어울립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를 해박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멋진 전화 회의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JAR512.php>



가슴 뭉클한 화상회의

『고귀한 야생』 신간 발표회와 ‘함께 지구를 구하자’ 심포지엄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베스트셀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에 이어 칭하이 무상사는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17일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서 열린 신간 발표회에서 동물 시리즈 세 번째 책인 『고귀한 야생(The Noble Wilds)』을 새로 선보였다. 이 책은 아름다운 시와 같은 문장과 자연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기후변화 심포지엄과 함께 열린 이번 신간 발표회에서는 대중들에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긴박한 위험을 알리고 지구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행사는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현장과 ‘사랑의 바다 문예광장’에서 동시에 거행되었으며 전세계 시청자들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이 아름다운 행사를 시청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발단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포모사 대통령 후보인 마잉주(馬英九) 씨와 세창팅(謝長廷) 씨가 스승님의 신간의 성공을 기





특 집 기 사

원하는 족자와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전임 중화민국 검찰원 사무총장 천이풍(陳義豐) 씨(사진 1), 타이페이 시의원 저우보야(周栢雅) 씨(사진 2), 황야보호협회 사무총장 스춘롱(施存榮) 씨(사진 3), 녹색당 소집인 천만리(陳曼麗) 여사(사진



4), 녹색당 판한성(潘翰聲) 사무총장(사진 5), 행정원 농업위원회 토종생물연구소 탕샤오위(湯曉虞) 소장(사진 6)과 부연구원 잔팡쩌(詹芳澤) 박사(사진 7), 샤바비즈(Shabaviz) 출판사 사장 파리데 칼라트바리(Farideh Khalatbaree) 여사(사진 8) 등 각계 정부 요인과 저명한 학자, 매체들도 이 행사에 참석해 신간 출간을 축하해 주었다.

행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칭하이 무상사가 대형 화면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귀빈과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스승님은 무척 고맙다고 하시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신간 발표회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감동했다고 말씀하셨다. 청중들은 스승님의 아름답고 우아한 새들이 같이 화면에 등장하자 더욱 환호했다. 개회사에서 스승님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야생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신 경험을 대중들과 나누셨다. 스승님은 동물들의 신임을 얻어 그들의 비밀스런 세계로 들어가 신성하고 진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다. 또한 스승님은 동물 친구와 같이 지내면 “우리 마음이 확장되고 우리를 순수하고 티 하나 없는 생명의 초원으로 이끌어 자연과 하나되게 융합시킵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완벽하게요.”라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또한 이 고귀한 중생들이 전해 준 귀중한 정보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셨다. “그건 마치 비밀의 베일을 벗은 동화처럼 원래 생명이란 인간·동물·곤충·식물·광물 모두에게 똑같은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만물을 감싸고 키워 내기 때문에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을 때 모든 존재들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은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때로는 야영을 하시며 추운 날씨를 견뎌야 했고 심지어 밤을 꼬박 새기도 했다고 하셨다. 오로지 대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야생 동물과 곤충 같은 중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장의 모든 내빈들은 칭하이 무상사와 대자연의 친밀한 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책을 집필해 세상을 구하고 또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 주신 스승님의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스승님도 이에 응답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그후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지구 생태계가 당면한 위기를 모두에게 알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스승님은 관련 전단을 배포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지구 온난화 정보를 방송함으로써 채식의 중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세계가 깨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또 포모사 원주민의 역할과 원주민 문화·가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원주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원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은 자연과 더욱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주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스승님은 전세계 모든 정부가 원주민의 지혜, 자연과 공생하는 그들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도 역설하셨다. 고귀한 야생 동물의 어떤 면이 가장 인상 깊었느냐는 질문에, 스승님은 서로에



특 집 기 사

대한 투철한 보호 정신과 돈독한 사랑, 그리고 그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모습이라고 대답하셨다.

칭하이 무상사는 모든 인류가 최선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호하길 소망하셨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우리 인류와 다른 모든 중생의 집이며 사실 모든 생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류이든, 길들여진 동물이든 야생 동물이든, 또 곤충, 식물, 광물이든 상관없이 이 광대한 우주의 계획에서는 신의 창조물 모두가 제각기 존재의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창조물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 큼이나 중요합니다.” 현재 지구가 당면한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동물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가 신속한 행동을 취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눈앞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미 발생한 손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스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도 알려 주셨다

1. 더 훌륭하고 고상한 습관을 기른다. 즉 채식을 한다.
2. 태양열·풍력·조력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한다.
3. 모든 이들이 나무를 몇 그루씩 심는다. 그러면 전 지구에 수십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온난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
4. 하늘의 자비에 기도한다!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한 뒤에도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의 업장을 씻어 내고 모든 존재들을 도울 더 많은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또 스승님은 “우리 각자 지구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모두들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셨다.

마지막으로 스승님은 청중들을 위해 화면을 통해 채식 케이크를 자르시고, 지구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성공하길 기원하며 축배를 드셨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책을 사려는 독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더 기쁜 일은 『고귀한 야생』이 출간된 후 3주 연속으로 킹스톤 서점의 ‘인터넷 실시간 판매 순위(비분류 분야)’ 1위를 기록한 사실이다. 이번 신간 발표회는 많은 매체의 관심을 받아 ‘교육라디오’, ‘CSBC 라디오’, ‘타이베이 라디오’, ‘원주민TV’, ‘시대뉴스’, ‘CTI뉴스’, ‘태평양일보’, 『대만신생보』, 『조달청공보』, 『자유시보』, 『중국시보』, 『청년일보』, 『세계논단보』, 『소년중국신보』 등에 보도되었다.

부드러운 사랑과 무조건적인 헌신을 통해 오묘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책 속에 담아 우리에게 야생 동물의 고귀함과 깊은 사랑에 눈뜨게 해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 이 행사를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522-525.php>



『고귀한 야생』

귀중한 소장품이 될 시대의 걸작

영문판·중문판 동시 발행

희 망천 황금시대 5년(2008년)의 도래를 알리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고귀한 야생 (The Noble Wilds)』이라는 새해 선물을 세상에 선사하였다. 스승님께서 직접 글을 쓰시고 사진도 찍으신 이 호반 생태 일지는 시처럼 아름다운 문장과 그림 같은 자연의 풍광과 생동감 넘치는 야생 동물들을 담은 사진이 멋지게 어우러져 최고의 예술 작품을 이루어 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신비를 발견하는 한편 대 자연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물 이웃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류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귀한 영혼과 헌신의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 내면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런 오묘한 신비를 알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야생 동물과의 정이 깊어짐에 따라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를 알게 되자 다른 무리들에 대한 자료들도 덩달아 알게 됐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동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주: 칭하이 무상사의 저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의 영문판과 중문판은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과 포모사의 킹스톤 서점, 북스닷컴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으며 ‘2007년 최고의 대만 대표 도서’로도 선정되었다.

『고귀한 야생』 온라인 구매 사이트:

아마존닷컴 (영문판)

<http://www.amazon.com/Noble-Wilds-Supreme-Master-Ching/dp/9868415233/> (페이퍼백)

<http://www.amazon.com/Noble-Wilds-Supreme-Master-Ching/dp/9868415225/> (양장본)

킹스톤 온라인 서점 (중문판)

http://www.KingStone.com.tw/book/Book_Page.asp?kmcode=2018551326768 (페이퍼백)

http://www.KingStone.com.tw/book/Book_Page.asp?kmcode=2028551326811 (양장본)

생기 넘치는 바퀴 달린 개, 우노

소냐 레반도브스키 사저/ 독일 뮌헨 (원문 영어)


나의 작은 반려 우노(Uno)는 12살 된 치와와 혼종이다. 그녀는 줄곧 내 곁을 지켜온 친구로서 웃음을 함께 나누고 슬플 때는 내 눈물을 훔아 주었다. 나는 항상 스승님께서 나의 모든 가족들을 돌보시듯 우노 또한 똑같이 돌보신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2001년 10월 어느 날, 우노의 뒷다리가 갑자기 일어서지 못했다. 그녀는 상체 전체의 고통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내가 만지기만 해도 물곤 했다. 여러 차례의 정밀 검사 끝에 수의사는 마비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방광도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했다. 수의사는 우노가 너무 고통 받지 않도록 안락사를 시키라고 충고했다. 나는 스승님께 우노를 도울 수 있는 의사를 찾게 해 달라고, 그것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우노가 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나는 스승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정처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 그러다 전방위 애완동물 영양 식품을 파는 가게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녀는 개들에게 침을 놓고 또 마비된 개도 침술로 치료하는 수의사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아큐벳 진료소(Acuvet Clinic)를 찾아가서 힌드마치 박사(Dr. Hindmarch)를 만났다. 그는 우노의 고통을 없애 주었을 뿐 아니라 우노의 몸에 달 수 있는 이론 보행기도 만들어 주었다. 완성된 보행기를 달자 우노는 마치 뒷다리에 아무 이상도 없었던 때처럼 기뻐 날뛰며 돌아다녔다. 힌드마치 박사는 내가 학생임을 알고선 보행기 제작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치료비도 형편 되는 대로 내라고 했다. 이 모든 멋진 안배를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정기적으로 우노의 방광에서 오줌을 짜내야 했기 때문에 매일 나는 그녀를 케이프타운 대학으로 데리고 갔다. 몇 년이 지나자 온 학교가 '바퀴를 단 우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우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고 또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어 웃음을 자아내는 존재가 되었다. 케이프타운의 신문 전면에 그녀의 기사가 나기도 했다.

우노는 언제나 수행에서 나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듯하다. 예를 들면 그녀는 더욱 부지런히 명상하도록 다그친다. 그녀는 한밤중에 내 관음보에 앉아 나를 깨울 만한 적당한 소리를 내곤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커다란 갈색 눈으로 날 쳐다본다. 마침내 내가 명상하려고 앉아서 관음보로 우리 둘을 덮으면 그녀는 내 품을 파고들어 편안히 자리를 잡고 누워 아침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우노가 마비된 지 6년이 지났고 그녀는 이제 디자인이 더욱 개선된 세 번째 보행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노는 매우 건강하고 강하며 여전히 강아지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나는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녀를 사랑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영혼, '바퀴를 단 우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후기: 우노의 이야기를 들으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우노의 진료비와 기타 필수품 비용에 충당하도록 미화 2,000달러를 보내셨다.






♥♥♥♥♥♥♥♥♥♥ 감전 사고로부터 보호자를 구한 강아지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다 렌(大連) 시에 살고 있는 장 씨는 집에서 전자제품을 수리하다 감전이 되었다. 그때 목숨을 구해 준 것은 놀랍게도 30cm도 안 되고 몸무게도 10kg에 불과한 그의 애완견 숭숭이었다.

장 씨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근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일을 보러 나갔고 집에는 저 혼자 있었는데 냉장고를 수리할 마음을 먹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냉장고를 수리를 하던 중에 오른손이 콘센트에 닿는 바람에 엄지와 검지가 경련을 일으키며 콘센트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당시에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팔이 지독하게 아팠습니다.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지요.” 그때 마침 침실에서 놀고 있던 숭숭이 주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나왔다. 주인이 경련하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는 것을 안 숭숭은 즉시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적당한 자리를 잡은 후 주인의 오른손으로 힘껏 뛰어내려 콘센트에서 손을 떼내 그의 생명을 구했다.

“오른손이 콘센트에서 떨어진 후 10분이 좀 지나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숭숭이 아주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고마운 나머지 눈물을 흘릴 뻔했던 장 씨는 숭숭을 힘껏 껴안았다. 숭숭은 그 위험한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 주인을 구함으로써 사람을 구한 영웅적인 동물 이야기에 아름다운 일화를 또 하나 추가했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구를 먹어 치우다

-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영화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구를 먹어 치우다(Devour the Earth)’는 영국 ‘채식협회’와 유럽 ‘채식 연맹’이 제작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식주의자 비틀즈 멤버인 폴 매카트니 경(Sir. Paul McCartney)이 해설을 맡은 단편 다큐멘터리이다. 또 이 영화 도입부에는 슬로베니아 제2대 대통령인 고(故)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글이 나온다.

‘지구를 먹어 치우다’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친 결과와 육식이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지구에 끼친 영향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현재 유엔과 ‘정부 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확인한 과학적인 증거는 육식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일 뿐 아니라 지구에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악영향을 끼쳐 왔다는 오싷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준다. 이 영화를 보면 40억 년 동안 생태계 균형을 유지해 온 지구가 산업 혁명이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겨우 200년 만에 심각하게 파괴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육류 산업이 지구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가혹한 사실이 나열된다. 불타는 나무와 동물의 배설물이 서로 합쳐져서 우리의 소중한 대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인류와 동물의 건강이란 측면에서, ‘지구를 먹어 치우다’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다양한 종류의 암과 광우병, 심장질환 같은 많은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또한 이 영화는 우리의 공동 거주자인 동물 이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똑똑하며 사랑이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사랑·고통·슬픔·즐거움의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인류가 우리만큼이나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길 열망하는 이 특별한 친구들을 얼마나 배려 없이 잔인하게 죽이는지를 논한다.

‘지구를 먹어 치우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육식이 인류와 동물, 지구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영양적인 면에서도 육식에서 음식을 공급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식주의나 비건 식생활을 선택하면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고 동물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면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깨끗한 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지구를 보존해야 한다. 그러면 동물 친구들도 대단히 고마워할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동물 친구들에게 매일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과 학대를 멈추고 궁극적으로 우리 행성을 구하고자 한다면, ‘지구를 먹어 치우다’를 감상하고 채식을 하길 바란다! 🌸

드르노브세크 박사와 채식 단체가 협력해 제작한 이 영화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18개 언어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www.GlobeTransformer.org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이트: http://www.youtube.com/profile_videos?p=r&user=satvapuri&page=1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채식주의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영국의 사우스햄튼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ampton) 과학자들이 10세 때부터 지능 검사를 받아 온 8천 명이 넘는 30세 성인의 식생활을 연구한 결과 아이


큐가 높을수록 채식주의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주도한 과학자인 캐서린 게일(Catherine Gale) 박사는 어렸을 때 총명했던 사람이 30세에도 그 지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하며,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보다 채식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자료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healthNews/idUSL1452462620061215>

기차 안 티타임

청하이 무상사/ 2001. 4. 2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8**

기차에서 제공하는 차는 아주 맛이 없다고 합니다. 한 승객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 마시는 시간이 되자 직원이 카트를 끌고 와서 물었지요. “차 드시겠습니까?” 승객이 말했어요. “아, 그래요. 한 잔 주세요.” “우유를 넣을까요? 말까요?” 직원이 묻자 승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유와 설탕은 다 넣고, 차는 빼 주세요!” 



스승님의 농담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news/195/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95/jk1.htm>

스승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오셨다. 어딘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님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시고 재해 지역에 구호 팀을 파견해 도우신다. 이 같은 구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축복, 도움으로 세계적인 재난이 최소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스승님께서 세계 각지의 정부와 단체, 구호 대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이재민들에게 관심과 구호품을 가져다준 모든 국제적인 원조에 감사를 보냅니다. 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시간을 내어 좋지 않은 도로 여건과 여러 악조건을 뚫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해 준 모든 구호 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종만한 축복으로 보답받길 기원합니다.”

호주

진정한 사랑 나누기

브리즈번 뉴스그룹 (원문 영어)

1월 초, 계속된 호우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북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 최소 일주일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통신이 두절되었다.

호주 긴급 구조 센터는 신속히 대처해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도왔다. 그러나 삶에서 그토록 큰 참상과 손실을 겪은 사람들은 종종 궁핍하고 무력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 이들의 처지를 염려하신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호주 동수들에게 수재민들을 도우라고 지시하시며 구호 활동에 미화 만 달러를 보내셨다.

동수들은 브리즈번에서 홍수가 난 지역에 가져갈 물품들을 사고 그날 저녁에 신선한 식품과 건조 식품, 의약품, 스승님의 책들이 함께 들어간 200상자를 포장했다. 다음날인 1월 12일, 브리즈번 지역과 뉴사우스웨일스 중북부 해안 지역 동수들은 바이런베이(Byron Bay)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현지 동수들이 크요글(Kyogle)과 코래키(Coraki)가 가장 큰 홍수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알려 주었다.


이어서 이틀에 걸쳐 구호 팀은 수재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선물 상자를 나눠 주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가슴 뭉클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었다. 크요글의 렉스(Rex)라는 할아버지는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모든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도 활기에 넘쳤으며 기쁘게 구호품 상자를 받았다. 다른 한 여성은 잃어버린 물품들을 새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기부를 받아서뿐 아니라 수재민들을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스승님의 마음 때문에 더욱 스승님께 감사했다.

또 구호 팀은 다시 굿윈(Darcy Goodwin)이라는 한 성스러운 남자를 만났는데, 오래도록 인상에 남는 사람이었다. 이 노신사는 자신의 뱀을 이용해 17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주변 지역에 채식 음식을 제공해 오고 있었다. 동수들은 그의 겸손함과 무아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다시 씨의 도움으로 우리 구호 팀은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 구호품을 분배할 수 있었다. (다시 씨 이야기는 뉴스잡지 195호 '다시 굿윈 - 진실로 마음을 감화시키는 존재'를 참조하세요.)

스승님의 축복으로 선물 상자는 모두 이틀 만에 약 200가구의 수재민들에게 전해졌다.

동수들에게 있어 이번 구호 활동은 매우 수확이 큰 경험이었다. 구호 활동이란 단




지 수재민들에게 물질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심 없는 사랑으로 소통하며 응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잡목림 화재 생존자들을 위문하다

퍼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8년 1월 초, 잡목림 화재가 발생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주도인 퍼스에서 15~35km 떨어진 북부·북동부 교외를 휩쓸었다. 이 영향으로 쿨러카바디(Cullacabardee)·파커빌(Parkerville)·스톤빌(Stoneville) 지역이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이재민들을 깊이 염려하신 청하이 무상사는 지역 동수들에게 구호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파커빌에서는 한 부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침구를 포장해서 스승님의 출판물과 함께 '대안적인 삶' 소핑백에 넣어 전달했다. 그 부인은 수행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던 터라 스승님에 대해 듣고 아주 기뻐했다. 다음날에는 몇몇 어린이들에게 자전거와 채식 식품 한 상자를 가져다주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한 가족이 화재로 길을 잃은 양을 애완동물로 거둬 구조된 다른 동물들과 함께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 동수들은 또 벽돌공인 스코트 오도우드(Scott O'Dowd) 씨를 데리고 가서 생계를 잇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사 주었다. 퍼스 센터에서 '수프림 마스터 TV'를 본 오도우드 씨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스승님의 책도 기쁘게 받았다. 



퍼스 센터 동수들로부터 침구를 받은 잡목림 화재 생존자 두 명.



청하이 무상사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북부 홍수와 퍼스 화재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호주 달러)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수재민들에게 지원한 식품	6,558.45	A
홍수 구호 활동을 위한 트럭 임대료	513.2	B
화재 구호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	1,827.52	C
수재민에게 제공한 위로금	2,600.00	
합계	11,499.17 (미화 10,116.12달러)	



모잠비크


모잠비크에 도움의 손길을 주다

요하네스버그 뉴스그룹 (원문 영어)

스승님께서 모잠비크 수재민들을 염려해 미화 12,000달러를 기부하시자 요하네스버그 센터 동수들은 신속하게 쌀과 옷, 정수 약품 등의 구호 물자를 준비해 1월 11일,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모잠비크로 향했다.

거의 이틀을 쉬지 않고 여행한 끝에 마침내 홍수가 난 노바멤본(Nova Membone)에 도착한 동수들은 재빨리 이 시급한 물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네 주는 한편 그곳 의사들에게 정수 약품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지방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은 스승님의 지원에 매우 고마워했다. 동수들은 수재 상황에 따라 쌀과 밀가루처럼 긴급한 식품들을 더 많이 빠른 시간 내에 구입했다. 정부는 대형 트럭 한 대를 제공해 동수들이 식품을 싣도록 도와주고 물품을 질서 있게 수재민들에게 배포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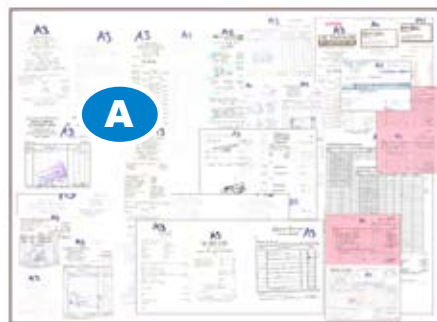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따스한 미소와 활기찬 태도로 우리를 환영해 줘서 정말 감동적이었다. 요하네스버그 센터 동수들은 어려운 처지의 모잠비크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무척 감사드렸다. 

청하이 무상사의 모잠비크 홍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남아프리카 랜드)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식품, 옷, 의료비	60,990.61	A
잡비(연료, 현수막, 여행 경비, 숙박비, 은행 수수료)	17,699.62	
합계	78,690.23 (미화 11,633달러)	



미국

스승님의 자비가 토네이도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주다

미국 남부 구호 팀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2월 5일, 미국 남부에 십여 차례의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아칸사스·테네시·켄터키·앨라배마 주를 휩쓸고 지나가 토네이도로서는 23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켜 50여 명이 생명을 잃고 수백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이를 깊이 우려하신 스승님은 즉시 미화 2만 달러를 기부하시며 미국 동수들에게 피해 지역에 찾아 가라고 지시하셨다.

델러스·조지아·인디애나·오하이오 센터 동수들로 구성된 구호 팀 두 팀은 신속하게 양말·생수·칫솔과 같은 구호품을 구입해 견본책자, '수프림 마스터 TV' 전단과 함께 '대안적인 삶' 가방에 포장했다. 이어서 한 팀은 앨라배마의 여러 대피소를 방문해 구호품을 나눠 주었다. 이 지역에서는 토네이도 하나가 10마일을 휩쓸어 가옥 80채를 덮쳤다고 한다.

나머지 한 팀은 테네시·켄터키·아칸사스·미시시피 주로 가서 이재민들에게 물질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안도 가져다주었다. 동수들은 또한 이재민들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구호품을 구입했다. 테네시 주에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구호품과 위문금을 전했다. 우리는 한 채식인 의사에게 동물 병원을 재건하는 데 보태쓰도록 미화 500달러를 전달하는 한편 '중부 테네시 지역 사회 재단(Community Foundation of Middle Tennessee)'에도 동물 재난 구호 기금으로 미화 천 달러를 기부했다. 아칸사스 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호품이 든 가방을 받자마자 견본책자부터 펼쳤다. 미시시피 주에 갔을 때는 한 침례교회 목사에게 기부금과 견본책자를 전했는데, 목사는 우리 구호 팀이 먼 길을 마다않고 도움을 주러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네이도 이재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물을 나눠 주는 동안 구호 팀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리 작업도 도와주었다. 우리는 물자 제공과 재정 지원을 통해 자비로운 관심을 보여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으며, 이런 도움을 받은 많은 이재민들 또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원조를 받은 뒤 더 행복해 보이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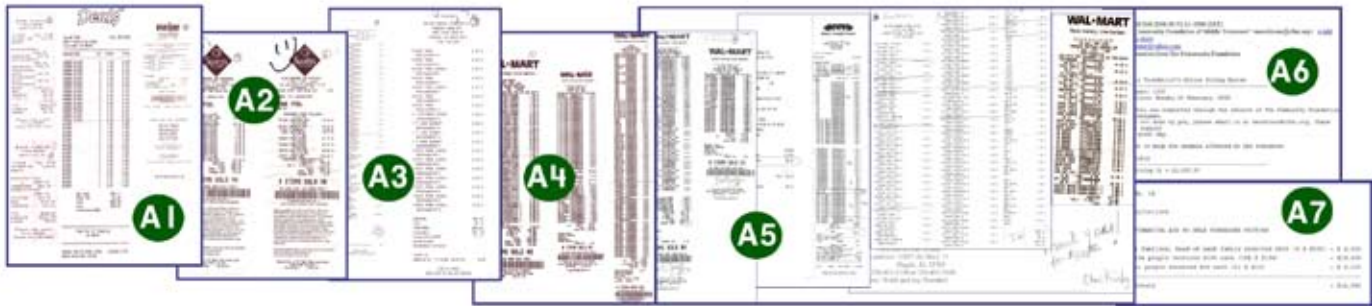
수의사인 로딘 퍼니스 박사(Dr. Lorraine Purcnis)가 토네이도로 지붕이 파손된 자신의 병원 앞에서 선물과 재정적 도움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깊은 감사를 표하다.

이 구호 활동을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524.php>

청하이 무상사의 미국 남부 토네이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미국 달러)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생수, 장갑	297.66	A1
식품(감자칩·과자·간식)	626.04	A2
치솔, 치약, 모포	502.21	A3
장갑, 담요, 손전등, 전지	1,579.20	A4
아칸사스와 앨라바마 토네이도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 구입과 성금	1,772.16	A5
토네이도 피해 동물 구호 기부금	1,000.00	A6
159명의 토네이도 이재민에 전달한 성금	14,950.00	A7
합계	20,727.27	



신의 자녀에게 봉사하기


휴스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스턴은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해 기온이 화씨 89도에서 60도로 떨어졌다. 도시의 노숙자 친구들이 걱정된 지역 동수들은 면양말과 털모자 등의 생필품을 담은 200개 정도의 선물 꾸러미를 1월 20일 한 노숙자 쉼터에서 뜨거운 커피, 도넛과 함께 나눠 주었다. 쉼터 관리자인 빌리 조 셰퍼드(Billy Joe Shepherd) 씨는 우리의 도움에 대단히 기뻐했다. 그는 심지어 '수퍼마켓 마스터 TV'의 '지구 온난화-SOS' 메시지를 방송할 장소도 제공해 주었다.

셰퍼드 씨는 동수들에게 자신은 원래 시애틀에서 직장을 다녔었는데 여러 번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유는 몰랐지만 자신을 위한 안배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그는 나중에 '사랑(Love's)'이라는 노숙자들을 위한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



까지 15년간 형제자매들을 돕는 데 헌신해 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헌신적인 봉사에 감동을 받은 동수들은 그에게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선물했다. 셰퍼드 씨는 책을 받고 너무나 감격하며 좋아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히 여기며 신의 자녀들을 섬기는 같은 이상을 가진 또 다른 친구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스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울락

흑한으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다

어울락 뉴스그룹 (원문 어울락어)

2008년 1월부터 어울락 북부와 중부 지방은 흑한의 날씨로 많은 사람들과 동물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역 농산물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재해 지역의 동포들을 염려한 어울락 동수들은 즉시 담요 56장과 스웨터 52벌, 그 외 여러 가지 옷이 포함된 구호품 여섯 부대를 이재민들에게 보내는 한편 2차 구호 활동을 위한 성금도 모으고 있다.

신의 축복으로 이 고통 받는 어울락 국민들이 하루속히 재해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인도네시아

자바 동부·중부 지역 수재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다

수라바야·옥야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7년 12월 말, 이틀 연속으로 내린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자바 섬 중부와 동부 지역의 여러 도시에 홍수가 발생해서 만여 명이 대피해야 했다. 이를 깊이 걱정하신 스승님은 인도네시아 센터에 구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셨다. 홍수가 난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관계로 자바 중부와 수라바야의 구호 활동은 옥야카르타 센터가 맡고 자바 동부는 말랑 센터가 맡았다. 동수들은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와 협력해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 생필품을 나눠 주었다.



2007년 12월 31일, 수라바야·말랑 센터 동수들은 보조네고로 (Bojonegoro) 시로 갔다. 이 도시는 절반이 넘는 16개 행정구가 물에 잠겼고 그중 세 곳은 수위가 3미터에 이르렀다. 구호 팀은 생수와 비스킷, 슬리퍼 등의 구호품을 지역 적십자사에 전달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재민들에게 나눠 주도록 했다. 일주일 후, 구호 팀은 다시 피해가 심한 첸티니(Centini) 마을을 찾아가 구호품을 전달했다. 촌장의 말에 따르면 온 마을이 수심 2미터의 홍수에 잠겨 많은 농경지가 파괴됐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담요나 생수 같은 구호품은 주민들에게 대환영을 받았다.



2008년 1월 4일 아침, 옥야카르타 동수들은 18,751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쿠두스(Kudus)로 갔다. 이어서 지역 적십자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1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된 제티스 카푸한(Jetis Kapuhan) 마을을 방문해 쌀 46부대와 생수 432병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준 다음 구호품이 거의 다 떨어진 적십자사 캠프에 구호품을 추가로 제공했다.



마을 주민들은 구호품을 보내 주신 스승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의 은총으로 1월 8일을 기해 물이 빠지기 시작해 많은 이재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인도네시아 자바 동부·중부 홍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식품(쌀·비스킷·분유·생수), 교통비	25,462,755	A1
일용품(수건·샴푸·비누·칫솔·치약·담요·옷)	2,092,506	A2
약품(카유포티 오일·발삼 연고·비타민 B 복합제와 비타민 C)	244,560	A3
잡비(연료·사진기 대여·식사·문구·컴퓨터 대여·인쇄·인화)	1,088,880	A4
합계	28,888,701 (미화 3,178달러)	



‘생명 사랑’ 유출 기름 제거 작업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2007년 12월 초, 태안 앞바다에 10,500킬로리터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수들은 서둘러 재난 지역으로 향해 한때 아름답기로 이름난 이 지역 해안을 복구하는 작업에 동참했다. 12월 14일부터 약 5주 동안 작업 팀은 영하의 날씨 속에 학암포 해변과 마애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맡아 기름 제거 작업을 했다. 동수들은 작업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매일 단체 명상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외면받지 않았다. 1365중앙구조단 김성기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는 바위의 기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태풍 나리호 때도 다른 단체보다 먼저 도착해 복구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칭하이 무상사님이 정말로 재난 지역을 돕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휴일과 연말 모임을 제쳐놓고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다. ‘한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규모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희망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대한 재난 지역을 청소하면서 동수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으며, 스승님의 모범을 따라 지구를 구하는 데 다 같이 헌신적으로 일하기로 다짐했다. 🌸



중국

엄동설한의 폭설 피해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다

중국 동수 종합보도 (원문 중국어)

중 국 대륙에 2008년 1월 12일부터 5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려 남북으로 중국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 10여 개 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약 8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악천후로 교통이 마비되어 음력 설을 쇠러 고향에 내려갔던 수백만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 이 상황을 들으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즉시 동수들에게 이재민들을 돕도록 지시하시고 미화 2만 달러를 지원하셨다.

안후이



2월 3일 새벽, 마침내 폭설이 그치자 안후이(安徽) 성 동수들은 곧바로 식용유·국수·담요·솜옷 등 이재민들에게 긴요한 생활용품들을 구입하고 차량을 임대해 총 7차에 걸친 구호 활동을 펼쳤다. 동수들은 피해가 심각한 페이둥(肥東)·루장(廬江)·칭양(青陽)·수청(舒城)·웨이(嶽西) 등의 현과 산간 벽지의 작은 마을에 구호품을 나눠 주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생활용품 외에 현금도 전달했다.

우리가 웨시 현의 한 마을에 갔을 때 촌장은 매우 놀라서 말했다. “이 마을에서 22년간 일했지만 여러분처럼 구호 물자를 직접 집집마다 전달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런 때 찾아오다니요. 우리 마을에는 80가구가 있는데 이미 식량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때맞추어 잘 해주었습니다.”

산시



이번 폭설 사태가 나기 전, 산시(陝西) 성 동수들은 이미 겨울철 온정의 손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미망인과 노인, 가난한 아동들에게 겨울옷과 모자, 신발, 위문금을 전달하고 ‘산시성어린이복지원’과 ‘산시성어린이마을’에

옷과 석탄을 보냈었다.

폭설이 내린 후, 동수들은 신속하게 바오지룽(寶雞隴)·첸양(千陽)·펑상(鳳翔)·린유(麟游) 현 등의 재난 지역으로 달려가 이재민들에게 밀가루, 쌀, 식용유, 침구류, 솜옷 등을 전달하고 양로원과 고아원도 방문해 많은 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극빈 가정에는 현금을 전해 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했다. 이 외중에도 생면부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참으로 기뻐다.

후난

후난(湖南)은 폭설의 영향으로 인해 전기·교통·통신 등 기반 시설이 크게 파괴돼 3천여 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에서도 천저우(郴州) 지구는 수도와 전기가 완전히 끊겨 거의 고립 상태에 빠짐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음력설인 2월 7일, 동수들은 가



죽과 보낼 명절을 포기하고 천저우로 달려가 그중에서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구이둥(桂東) 현에서 구호 활동을 했다. 민정국 부국장과 향장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한커우(寒口) 마을 주민들에게 이불과 쌀, 기름, 위문금을 직접 전달했다. 이 마을은 눈 때문에 전력망이 심하게 파손되어 6개월 이내에는 복구가 힘들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을 사람들은 정미소를 돌릴 전력이 없어 식량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다. 이에 동수들은 쌀을 도정할 수 있도록 디젤 발전기 10대를 이 지역에 추가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에는 화이화(懷化) 지구 후이통(會同) 현을 찾아가 쌀 10톤을 기증하고 가난한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구이저우

2007년부터 구이저우(貴州) 동수들은 도시 전역의 가난한 독거 노인 가구 실태를 조사해 그들의 생활 형편에 따라 물품과 위문금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독거 노인 127명과 노인 복지원 세 곳을 방문해 그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선사했다.

올해 초 폭설 구호 활동을 진행할 때는 현지의 한 공익 단체와 함께 내리는 눈을 무릅쓰고 100km 떨어진 룽리(龍裡) 현 시마(洗馬) 마을을 방문했다. 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위험했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들은 재난 지역에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여러 모로 애쓴 끝에 지프를 빌렸다. 우리는 정부 보조 대상 가구 103세대를 방문해 각각 25kg의 쌀을 나눠 주었다. 2차 구호 활동 때는 범위를 더욱 확대해 3개 현, 5개 향의 총 10개 마을 이재민과 양로원에 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원난

2월 1일, 우리는 원난(雲南) 자오통(昭通) 시의 가난한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이 가득 담긴 방한 의류와 신발, 담요, 케이크, 사과 등의 구호품을 나눠 주고, 벽지에 사는 이재민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했다. 이 외 이량(彝良) 현 고산 지대의 묘족과 이족 등 소수민족 이재민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현 가운데 하나인 진쑹(鎮雄) 현은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마을 사람 대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제대로 없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극빈층 이재민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재민 모두 깊이 감동했으며 우리 단체가 찾아와 관심을 보여 준 것에 매우 고마워했다.

광시

이번 폭설로 광시(廣西) 성은 1,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으며 그중 구이린(桂林) 시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다. 도로 사정이 매우 나빠 구호품을 재해 지역으로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불과 솜옷, 군용 재킷 등의 보온 물품을 구이린 시 적십자사에 전달해 이재민들에게 나눠 달라고 했다. 동수들은 또한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시민들이 기부한 헌옷을 정리·포장해 트럭에 싣는 일을 도왔다.



2월 11일과 14일, 우리는 물품을 준비해 구이린 시 야오족(瑤族) 부락과 판네이(潘內) 촌에 가서 구호 활동을 펼쳤다. 판네이 촌에는 디젤 발전기도 기증했는데, 촌장은 이 발전기 덕분에 쌀 찌를 걱정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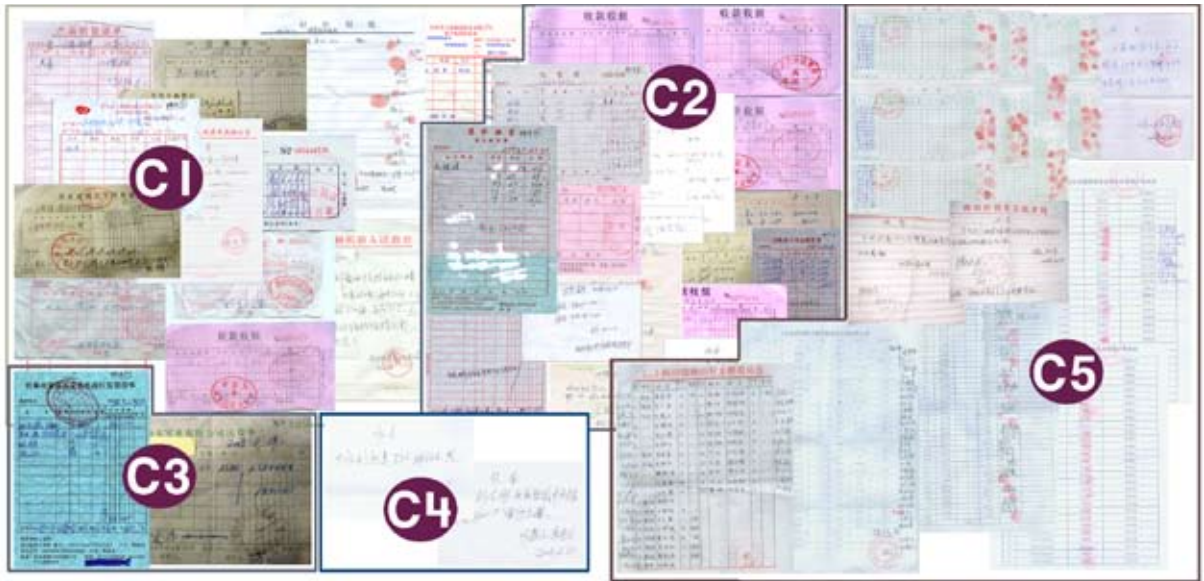
2월 23일에는 룡성(龍勝) 현 고산 지대에 있는 두 마을이 아직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식량이 바닥날 지경이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쌀 2,500kg을 구입해 한 가구당 각각 25kg씩 100세대에 나눠 주었다. 우리는 재해를 입은 이들이 이 시련을 무사히 넘기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신께 기도드렸다. 🌸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 협회의 중국 폭설 이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위안화)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식품(쌀·밀가루·식용유·국수·케이크·과일)	147,615	C1
방한용품(담요·이불·이불잇·솜저고리·군용 재킷·보온 내의·바지·신발·귀막이모자)	82,193	C2
발전기 11대	32,200	C3
운송비	6,630	C4
긴급 구호 성금	62,700	C5
합계	331,338 (미화 46,020달러)	



중국 내몽골 자치구


소외된 아동과 노인들과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을 나누다

내몽골 동수 (원문 중국어)



내 몽골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시의 한 아동복지원에는 160명의 어린이가 수용돼 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버림 받은 지적 장애아들로, 전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또한 한 양로원에 사는 216명의 외로운 노인들도 매월 정부 보조금을 받고는 있지만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다. 그래서 내몽골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음력설 전에 만 개의 채식 만두를 빚고 신선한 과일과 사탕, 채식 찐 계란, 세면용품 220세트, 1만 위안의 위문



금을 준비해 이들 아동복지원과 양로원을 방문했다. 우리는 설이 오기 전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 어린이와 노인들과 함께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을 나눌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포모사

포모사 뉴스그룹 종합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노숙자들을 돌본 장기간의 공로로 국제협회가 상을 받다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27일, 타이베이 현정부와 ‘타이베이 현 자원 봉사 협회’가 주최한 ‘노숙자 송년의 밤’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행사 당일, 사회국의 리리진(李麗圳) 국장과 자원 봉사 협회 황화싱(黃華興) 회장, ‘노숙자의 집’ 황메이잉(黃梅英) 소장이 동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거리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온 칭하이 무상사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저우시웨이(周錫璋) 타이베이 현장은 장기간에 걸쳐 사심 없이 봉사하고 지원해 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활동을 치하하며 ‘인자함으로 널리 이롭게 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패를 수여했다.



타오위안

노숙자들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다

1월 28일, 타오위안 현 사회처와 재단법인 ‘런안재단(人安基金會)’은 타오위안 시 원창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돕는 노숙자 봉사·상담 행사를 열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오위안 센터 회원들도 이 행사에 참가해 채식 도시락 백 개를 찬조하고 ‘대안적인 삶’ 전단도 배포했다. 국제협회의 사랑의 행동에 감동한 주최 측에서는 ‘사랑의 훈풍이 곳곳에’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단 깃발을 증정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밖에 타오위안 센터는 ‘런안재단’의 재활용 센터에도 물품을 기부했다. 이 중고용품은 노숙자 친구들이 정리·분류한 다음 기금회를 통해 자선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노숙자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핑둥

마을 사람들에게 온정을 전하다

황금시대 4년(2007년) 세모의 추운 겨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라이이 센터 회원들은 핑둥 산간 지역과 센

터 부근의 마을을 찾아가 이웃 사랑과 온정의 손길 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우리는 완루안(萬畝) 향 신즈(新置) 촌과 라이이 향 각 부락의 중저소득층 가정과 심신 장애인들에게 쌀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전하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겨울을 보내길 기원했다. 



2007년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세계 각지 구호 활동, 자선 단체 기부, 뛰어난 인물·동물들에 대한 표창 일람표

국가	연월	사유	지출 금액	미화 환산 금액	잡지 호수
어울락	2007. 1.	'매종 상스'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	179
	2007. 3.	'교육 지원·인도주의 기금'에 기부	미화 30,000달러	30,000	181
	2007. 8.	태풍 이재민 구호	베트남화 511,402,500동	31,665.79	190
	2007. 10.-11.	북부와 중부 지방 수재민 구호	베트남화 778,740,932동	48,511.35	192, 193
	2007. 11.	'빛나는 세계 자비상 수상자'인 호앙 쯙 랍 씨에게 상금 전달	미화 500달러	500	194
호주	2007. 1.- 2.	호주 잡목림 화재 피해자 구호	호주화 9,500달러	7,340.00	179
	2007. 12.	'빛나는 세계 영웅상' 수상자인 줄리엔 쇼에게 상금 전달	미화 1,000달러	1,000.00	194
방글라데시	2007. 8.	'빛나는 세계 사진상' 수상자인 모하멧 사히둘라에게 상금 전달	미화 2,000달러	2,000.00	191
	2007. 8.	수재민 구호	방글라데시화 2,753,750타카	40,318.45	189
	2007. 11.	사이클론 구호	방글라데시화 2,062,653타카	30,067.00	193
볼리비아	2007. 4.	수재민 구호	볼리비아화 79,124,69볼리비아노	10,066.75	183
브라질	2007. 1.	브라질 남부 홍수와 진흙 사태 구호	브라질화 53,412.89레알	24,950.00	178, 180
부르키나파소	2007. 7.-8.	수재민 구호	부르키나파소화 4,709,957세파프랑	10,000.00	190
카리브 해 지역(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멕시코)	2007. 11.-12.	허리케인 노엘 이재민 구호	미화 73,882.71달러	73,882.71	193, 194
카메룬	2007. 3.	바멘다 지역의 집 잃은 사람들 구호	카메룬화 1,071,850세파프랑	2,100.00	182
중국	2007. 7.	원난 지진 피해자 구호	인민폐 46,145위안	6,101.00	188
	2007. 7.	환경 보호 단체 '중국 녹색눈'에 기부	미화 5,000달러	5,000	189
	2007. 7.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수상자인 천페이에게 상금 전달	인민폐 15,000위안	2,000.00	188
	2007. 9.	'발명 영웅상' 수상자인 마옌권에게 상금 전달	미화 1,000달러	1,000.00	191
	2007. 9.	'빛나는 세계 영웅상' 수상자인 용감한 물소에게 상금 전달	인민폐 1,500위안	200.00	190
	2007. 10.	내몽골 유기견 수용 센터에 기부	인민폐 36,500위안	5,000.00	192
	2007. 12.	'빛나는 세계 자비상' 수상자인 튀즈룽에게 상금 전달	미화 5,000달러	5,000.00	194
에콰도르	2007. 12.	토니 루터만의 다리 건설 기금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95



에티오피아	2007. 12.	가난한 고아 후원	미화 10,000달러	10,000.00	194
포모사	2007. 10.	중화민국 동물복지·환경보호협회에 기부	대만화 325,700NT	10,000.00	192
	2007. 11.	‘유기 동물의 집’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94
	2007. 12.	‘타이완 동물’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94
	2007. 12.	‘타이완 동물보호협회’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94
	2007. 1.-12.	전국 자선 활동	대만화 1,802,063NT	55,071.00	179-183, 185-188, 190-194
	2007. 1.-12.	빈곤층과 고아들에 대한 자선 활동	대만화 532,000NT	16,241.00	182, 188, 193, 194
홍콩	2007. 5.	아시아동물기금회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85
인도네시아	2007. 2.	수재민 구호	인도네시아화 31,884,000루피아	3,542.00	183
	2007. 3.	수마트라 서부 지진 이재민 구호	인도네시아화 28,141,000루피아	3,100.00	181
	2007. 12.	숨바와 섬 지진 이재민 구호	인도네시아화 63,896,800루피아	6,870.62	194
인도	2007. 2.	‘아동교육개발’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83
	2007. 2.	인도 극빈 가정에 저울 담요 배포	인도화 175,000루피	3,833.00	180
	2007. 8.	‘티베트 동물 보호 자원 봉사단’에 기부	미화 5,000달러	5,000.00	190
	2007. 8.	수재민 구호	인도화 3,183,350루피	80,000.00	190
	2007. 11.	‘빛나는 세계 여성 영웅상’ 수상자인 파르 자나에게 상금 전달	미화 2,000달러	2,000.00	193
	2007. 12.	동북부 마을에 우물 시추 장비 보조	인도화 60,000루피	1,500.00	194
이란	2007. 6.	남부의 사이클론 이재민 구호	이란화 13,418,400투만	14,460.00	186
이스라엘	2007. 8.	‘최후의 대형 유인원 기구’에 기부	미화 5,000달러	5,000.00	194
일본	2007. 7.	니가타 현 지진 피해자 구호	일화 618,012엔	5,190.33	188
대한민국	2007. 8.-9.	북한 수재민 구호	한화 49,839,300원	54,368.00	191
	2007. 11.	북한 수재민 식량 원조	한화 20,813,000원	22,413.00	194
레바논	2007. 2.	레바논 해변을 청소한 목파르 하스비니 군에게 기부	미화 5,000달러	5,000.00	180
말레이시아	2007. 2.	수재민 구호	미화 2,811달러	2,811.00	183
멕시코	2007. 12.	‘빛나는 세계 영웅상’ 수상자인 마누엘 지저스 코르도바 소베라네스에게 상금 전달	미화 1,000달러	1,000.00	195
몽골	2007. 4.-5.	자연 생태계 본원의 아름다움을 복구하기 위한 나무 심기	몽골화 9,587,000투그릭	7,898.00	184
네팔	2007. 10.	네팔 벽지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아파 세르파 씨에게 기부	미화 5,000달러	5,000.00	193
니카라과	2007. 9.	허리케인 펠릭스 이재민 구호	니카라과화 431,061.64코르도바	23,405.80	191
	2007. 10.	수재민 구호	니카라과화 430,334.30코르도바	23,375.03	192
파키스탄	2007. 6.	사이클론 엠인 피해자 구호	파키스탄화 1,825,485루피	30,000.00	188
	2007. 12.	에디 재단에 기부	미화 5,000달러	5,000.00	195

페루	2007. 8.	지진 구호 활동	페루화 219,634.55솔	70,160.07	190
필리핀	2007. 4.	'알레이 사 카왈 재단'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87
	2007. 4.	'필리핀 국제극예술협회'에 기부	미화 30,000달러	30,000.00	187
	2007. 7./ 10.	'퇴직 성직자의 집'에 기부	미화 120,000달러	120,000.00	189, 192
	2007. 12.	구시 평화상 재단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94
폴란드	2007. 4.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수상자인 이레나 샌들러에게 상금 전달	폴란드화 19,000주오티(5,000유로)	6,840.00	183
슬로바키아	2007. 7.	고아원의 크리스마스 행사와 주방 설비 교체	슬로바키아화 91,360코로나 (2,768.50유로)	3,792.00	178, 188
솔로몬 제도	2007. 4.	지진과 쓰나미 구호 활동	솔로몬 제도화 60,690.40SBD(10,232.62유로)	8,516.00	184
남아프리카	2007. 8.	'남아프리카 국립 연안 조류 보호 재단'에 기부	미화 2,000달러	2,000.00	191
수단	2007. 9.	수재민 구호	미화 30,300달러	30,300.00	191
스위스	2007. 1.	'세계자연보호기금'에 기부	미화 5,000달러	5,000.00	183
미국	2007. 2.	'제인 구달 야생 동물 연구·교육·보존 협회'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80
	2007. 2.	'베순 극무용단 장학 프로그램'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81
	2007. 2.	어울락 불교 사찰에 기부	미화 7,000달러	7,000.00	180
	2007. 3.	'안락사 반대 센터'에 기부	미화 5,000달러	5,000.00	182
	2007. 4.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수상자인 저스틴 크바다스에게 상금 전달	미화 2,000달러	2,000.00	183
	2007. 4.	'풀러 하우스 센터'에 기부	미화 20,000달러	20,000.00	183
	2007. 5.	캔자스 토네이도 구호 활동	미화 2,806.06달러	2,806.06	184
	2007. 6.	다르푸르 사람들을 원조하는 'IRC/넛 온 아워 와치 조직'에 기부	미화 200,000달러	200,000.00	187
	2007. 8.	로스앤젤레스 '애니멀 에이커스'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92
	2007. 8.	중서부 수재민 구호	미화 11,842달러	11,842.00	190
	2007. 9.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수상자인 테일러 맥길리스에게 상금 전달	미화 2,000달러	2,000.00	192
	2007. 10.	'가브리엘의 꿈-수단의 잃어버린 소년들을 위한 자선 단체'에 기부	미화 10,000달러	10,000.00	195
	2007. 3./ 4./ 11.	'빛나는 세계 영웅상' 수상자인 샤나·히어로·하니 등 세 마리 개에게 상금 전달	미화 2,400달러	2,400.00	181, 187, 193
	2007. 12.	'빛나는 세계 자비상' 수상자인 콜린 스틸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상금과 위문금 전달	미화 1,500달러	1,500.00	194
합계				1,399,937.96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gmail.com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gmail.com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21@yahoo.ca
포르투노보/ Mr. Hounhou Mahouge Didier/ 229-90-93-29-99/ smportonoovo@yahoo.fr
★ 부르키나파소: Ouagadougou/ Mr. YAMEOGO Honore/ 226-70-62-34-58/ honoreyam@yahoo.fr
★ 카메룬: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gmail.com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yahoo.fr
두알라/ Mr. BIANE Alain Frederic AHMADOU/ 237-99-86-50-26/ alainbiane@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Hung Lui-Liang/ 243-813611939/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Mbau Ndombe Abraham/ 243-811433473
★ 가나: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케냐: Mr. Chin Szu Yao/ 254-27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나이지리아:
예니고아/ Ms.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802/ 8206brayila@yahoo.com
★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76742-5040/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42-76/ jdossouvir@yahoo.fr
팔리메/ Mr. Late Komi Mensa/ 228-441-09-48/ smkpalimetogo@gmail.com
로메/ Mr. GBENYON Kuakui Kouakou/ 228-902-72-07/ kgbenyon@yahoo.fr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78-44/ mmylg@yahoo.fr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264-9807/ semazima@yahoo.com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3-4625964
★ 브라질: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센터/ ottawacentre@gmail.com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p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17-0946/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l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5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l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6673-2220/ mrle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981-836314/ emilce_cespedes@hotmail.com
시우다드델에스테/ Mr. and Mrs. Italo Acosta/ 595-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hotmail.com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gmail.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ontact@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3565176/ teresita41@hotmail.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1-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ianel33@yahoo.es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christophers2@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새크라멘토/ Mr. Thi Thai Le/ 916-799-7768/ thaivegi@yahoo.com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tuanins@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i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l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hotmail.com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hmail@yahoo.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ai@gmail.com
 § 플로리다: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드/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nny@yahoo.com
 § 조지아:
 센터/ georgiacenter@hotmail.com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Ms. Kim Dung Thi Nguyen/ 1-404-422-1431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gmai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itz/ 1-317-842-8119/ josiepoeb@sbcglobal.net
 § 캔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볼티모어/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1@hotmail.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mst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Mr. Hero Zhou/ 1-973-960-6248/ yb_zhou@hotmail.com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하이오: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리건:
 오리건/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931-4699/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yahoo.com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댈러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댈러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tx.rr.com
 댈러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댈러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2321@att.net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comcast.net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888@comcast.net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워싱턴 DC/ 센터/ 1-703-997-1622/ VA_Center@yahoo.com
 버지니아/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버지니아버지/ Le Thanh Liem/ 1-757-461-5531/ qytek@yahoo.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리브/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i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매단/ Mrs. Merlinda Sjai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i@sby.dnet.net.id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650-7704/ yogyakartawisdom@yahoo.com
 ★ 이스라엘:
 텔아비브/ Mrs. Talya Tal/ 972-50-8511720/ tal.talya@g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k7.dion.ne.jp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ilute@gmail.com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yahoo.co.jp
 오사카/ 센터/ smchtoosaka@gmail.com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yahoo.com
 나고야/ 센터/ 81-90-3447-3117/ yumiko-emi@hotmail.co.jp
 ★ 요르단: Mr. Jalar Marwan Irshaidat/ 962-7-9519993/ estaphuam@hotmail.com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okr@daum.net
 서울/ 조순복/ 010-2494-3455/ a81439@hanmail.net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부산/ 변환웅/ 010-6657-9736/ byunwhan@gmail.com
 부산/ 김홍련/ 016-571-5433/ rainhong1@hanmail.net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홍성태/ 011-530-5254/ hongst33@naver.com
 대구/ 김정순/ 011-503-4302/ yubabba@hanmail.net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eon@yahoo.co.kr
 대전/ 김선제/ 042-581-3718, 010-6425-2390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t1996@hanmail.net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광주/ 김경로/ 017-622-2374/ k2road@gmail.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공미희/ 016-475-5303/ kmeehee2000@yahoo.co.kr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신태/ 010-2507-3047/ ktjb@korea.com
 울산/ 센터/ 052-224-4111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원주/ 센터/ 033-763-9358
 원주/ 정광훈/ 019-369-2509/ funnychong@hanmail.net
 원주/ 김진숙/ 010-4715-2509/ chinskim@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v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oldpiong@streamyx.com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l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r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울란바토르/ Ms. Bolormaa Avirmed/ 976-11-341222/ bolor_suvd@yahoo.com

울란바토르/ Mr. Bayarbat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yahoo.com

코틀/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otolcenter@yahoo.com

코틀/ Ms. Tsend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aks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75-6609/ phi.loveocean.mnl@gmail.com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642/ chauthuykim@yahoo.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mchnirvana@gmail.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ckc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bkctcp@gmail.com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 mummykat@hotmail.com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ckpcr@gmail.com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en/ 66-50-332136/ siriwanliy@g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18499/ dradadiya@yahoo.com

두바이/ Mr. Mahesh Shah/ 971-50-4503514/ map_shah@yahoo.com

■ 유럽 ■

★ 오스트리아:

빈/ 센터/ 43-664-9953748/ qyaustralia@googlemail.com

빈/ 연락인 사무실/ 43-650-8420794/ ngocdany@yahoo.com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s.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laykov/ 359-2-8575358/ quanyinsolia@gmail.com

플로브디브/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98-9706788/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y.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spojenisbohemy.cz

★ 덴마크:

오덴세/ Mr. Thanh Nguyen/ 45-66-190459/ ductam@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 프랑스:

알사스/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lumieretson@gmail.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몽펠리에/ Mr. Sylvestron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wanadoo.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rg@gmx.de

베를린/ Ms. Hoa Thi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Mr. Veithen, Michael/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yahoo.de

프라이부르크/ Ms. Eliz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r@surfeu.de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뮌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vicky.chrisikou@g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ur@gmail.com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5811962/ reykvjavik_center@yahoo.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Mrs.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캄포바소/ Mr. Francesca Spensieri/ 39-333-722-5527/ fancy_lalla@yahoo.it

볼로냐/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gmail.com

★ 아일랜드: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yahoo.co.uk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gmail.com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he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linka_5@yahoo.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01@yahoo.com

★ 포르투갈:

알코바카/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jvcaldeira@clix.pt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l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9104659738/ moscowcenter@rambler.ru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mail.ru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c/ 381642748820/ majazemun@yahoo.com

★ 슬로바키아: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spojenisbohemy.sk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류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forevershinlove@gmail.com

마리보/ Mr. Rastislav All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l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lo@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s. Wenq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yahoo.es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e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gmail.com

★ 스웨덴:

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den@g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planet.nl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위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g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googlemail.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런던/ Mr. Danny Ejayese/ 44-7949798310/ danny_zen@yahoo.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드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shop/ 61-7-3901-7038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gmail.com

캔버라/ Ms. Jayita Belcourt/ 61-4-0976-1005/ jayita@amrita.com.au

멜버른/ 센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n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미드노스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goldenagecenter@gmail.com

노던리버스/ 바이런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6624-7209/ byronbaycentre@gmail.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love22@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233118/ ray_dixon@bigpond.com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스승님의 농담

펭귄을 잘 돌보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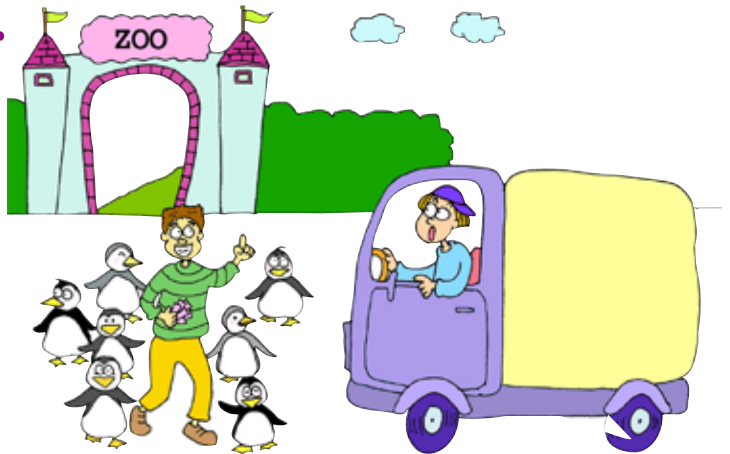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2001. 4. 2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29

어떤 사람이 펭귄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동물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트럭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차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른 트럭을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했지요. “아, 예,

예!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 500달러를 드릴 테니 즉시 이 펭귄들을 동물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지나가던 남자가 말했어요. “아! 문제없어요.” 그러고는 500달러를 받고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500달러냐요? 정말 이렇게 많아요?” 차를 고치던 남자가 말했어요. “그럼요, 정말이고 말고요. 지금 즉시 모든 펭귄들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그는 펭귄들을 자기 트럭에 싣고 떠났어요.

한 시간 후 고장난 차를 다 고친 사람이 동물원으로 펭귄을 데리고 간 사람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펭귄들이 그 사람 뒤를 따라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가 물었지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펭귄을 데려갔던 사람이 대답했어요. “음, 당신이 준 500달러가 너무 많더군요. 펭귄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러고도 좀 남아서 이제는 영화관에 데려가려고요.”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45 (영어+16개 언어 자막)

이 세상에 공헌하자

2002. 7. 21./ 7. 28./ 8. 11.

미국 로스앤젤레스·보스턴·싱가포르와의 화상회의

DVD 748 (영어+15개 언어 자막)

겸손함의 시작

2002. 8. 24./ 8. 25./ 8. 31.

한국 서울·미국 샌프란시스코·호주 시드니와의 화상회의

DVD 753 (영어+15개 언어 자막)

만물에 대한 사랑

2002. 9. 1./ 9. 7. 미국 인디애나·오스트리아 비엔나와의 화상회의



주요 내용:

2 002년, 스승님은 나날이 앞서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전세계 센터와 일련의 화상회의를 갖고 수행에 관한 각종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전세계에 큰 축복을 내리셨다. 스승님은 기술의 미래에서부터 지구 상의 전쟁과 오해를 없애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비결에서부터 사회에서 직면하는 고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해 말씀하신다. 스승님은 우리 자신을 비롯해 주변의 기운과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열심히 명상해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이 지구의 진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당신의 개들, 새들과 함께 보낸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동물의 내면 세계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나아가 더 큰 사랑으로 동물을 대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 CG20 (중국어)

스승의 전능한 힘은 모든 것을 안배한다

1989. 1. 13. 포모사 화련 단체명상

주요 내용:

관 음법문을 수행하면 신통을 수행하지 않아도 자연스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스승님은 수행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며 채식을 철저히 하라고 일깨워 주신다.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 아주 많은 업장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장애가 줄어들고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성과를 얻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유체 이탈과 영혼이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관음을 할 때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오히려 소리가 없어지는데, 관음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승님의 사진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스승님의 사진을 몸에 지닌 동수들의 신기한 체험을 들어보자.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31 (어울락어+16개 언어 자막)

한마음의 힘

2001. 12. 25.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국제 선행사


DVD 735 (영어+15개 언어 자막)

변화의 용기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국제 선행사



주요 내용:

2 001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스승님과 동수들은 플로리다 센터에 모여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동수들은 신의 무한한 축복과 스승님의 사랑과 보호를 입증하는 많은 감명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예를 들면, 한 채식 식당이 문을 열자 같은 거리에 위치한 모든 채식 식당이 번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승님은 수행의 올바른 개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며 수행의 진보가 꼭 내면의 빛과 소리의 등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신다. 스승님은 당신의 체험을 예로 들어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사람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환상이란 걸 알면서도 감동을 받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DVD 782 (중국어+14개 언어 자막)

개과천선의 공덕


2007. 2. 20./ 2. 24. 포모사 시후 국제 선오

DVD 784 (영어+15개 언어 자막)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자

2007. 2. 22. 포모사 시후 국제 선오

주요 내용:

이 두 강연에서 스승님은 지구를 보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호소하신다. 스승님은 축산업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유엔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시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신다. 또한 동수들에게 이 방법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널리 알리길 바라신다. 이 밖에 스승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보호하라고 격려하신다. 스승님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매우 고귀하며 순수하고 영웅적이므로 인류가 만물의 영장에 걸맞게 내면에 있는 이 우수한 자질을 일깨우길 희망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두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살생이 없어지면 이 지구가 바로 천국이 될 테니까 말이다! 






DVD 400 (중국어, 영어+ 15개 언어 자막)

열정의 밤

1994. 1. 1. 태국 방콕 새해 축하 공연

주요 내용:


태 국에서의 이 열정적인 밤에 각국에서 온 동수들이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스승님과 함께 새해를 축하한다. 스승님은 몇몇 외계인이 우리 사랑의 힘에 이끌려 여기에 왔다고 하시며 우리는 사랑의 기운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비록 우리는 다른 행성만큼 진보하거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것, 바로 사랑이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했듯이 만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물질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공(空)', 진정한 본질과 소통하고 그것을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여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비행기, 모든 것을 무료로 가질 수 있으며 연료도 필요 없고 세계 자원을 그토록 남용할 필요도 없게 된다. 

DVD 776 (중국어+19개 언어 자막)

사랑과 축복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 있다

2006. 11. 28. 세계 평화를 위한 명상 태국 특별 모임

주요 내용:

스 승님은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가진 이슬람 국가들을 칭찬하신다. 관음법문 수행자의 생활 방식은 코란의 지침과 유사하므로 우리는 진정한 무슬림이다! 고대인의 지혜에 따르면 어떤 국가든 훌륭한 사람을 열 명만 배출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정부의 업적을 찾아내 지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격려하신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정부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DVD 794 (영어+16개 언어 자막)

승고한 품성이 높은 나라

2007. 8. 22./ 8. 24. 프랑스 파리 선삼


주요 내용:

스 승님은 세계에서 승고한 품성이 가장 높은 5개 국가를 밝히시며 승고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면의 품성이라고 설명하신다. 승고한 품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신에 대한 믿음이 깊고 서로에게 신의 존재를 상기시켜 준다. 스승님은 승고한 품성은 개발될 수 있는 것이며 관음법문은 그 최상의 지름길을 제공한다고 격려하고 일깨워 주신다! 자기 나라를 돕고 싶다면 자신의 승고한 품성을 개발하여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게 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갖게 된다. 

환경을 구하는 사랑의 방법:

Birddie 쇼핑 가방

환 경 보호를 장려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특별히 창의 팀에 아름답고 실용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쇼핑 가방을 디자인, 제작하라고 하셨다. 100% 순면으로 된 새로운 'Birddie' 가방은 어깨에 매거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고, 접으면 열쇠고리가 달린 작고 귀여운 새 인형이 된다. 그래서 아주 편하고 할가분하게 외출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Birddie' 쇼핑 가방은 여섯 종류가 있으며 칭하이 무상사의 새 친구 여섯 마리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들은 Mirabeau(순백), Mimi(부드러운 노랑), Ping Ping(상쾌한 초록), Laguna(깊은 물빛 파랑), Kadula(열정적인 빨강)와 Anakhan(우아한 검정)이다. 이 새들과 다른 소중한 새들에 관한 이야기는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담겨 있다. 



Birddie·Doggie 시리즈 제품 총대리점: 사랑의 바다 창의 국제회사

전화: 886-2-27062628 웹사이트: <http://www.loveoceancreative.com> (중국어)

이메일: info@loveoceancreative.com

제12대 천상의 보석 파라마한사

디자인: 청하이 무상사

스승님 말씀: “이 백조들은 우리의 천국의 품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파라마한사’는 고양된 정신, 자유로운 영혼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중생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축복입니다.”



파라마한사 (II)



파라마한사 (III)



파라마한사 (IV)





파라마한사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자수정·사파이어·핑크 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월장석 등 다른 보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12대 천상의 보석 파라마한사

디자인: 청하이 무상사



파라마한사 (1)

 파라마한사(Paramhansa)는 산스크리트로 '무상의 백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을 나타내는 영적인 칭호입니다.

청하이 무상사는 최근 세계 각지를 다니시는 동안 종종 야생 동물들과 친밀하고도 감동적인 교류를 즐기곤 하셨습니다. 스승님은 그중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에게서 영감을 받아 S.M. 천상의 보석 시리즈의 하나로 '파라마한사'를 창작하시게 되었다. 이 시리즈를 구성하는 보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수정·사파이어·핑크 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월장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파라마한사의 영묘하고 투명한 디자인은 자유롭고 더없이 행복하게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순수하고 고귀한 백조를 묘사한다.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조들은 우리의 천국의 품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파라마한사는 고양된 정신, 자유로운 영혼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중생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축복입니다.”

청하이 무상사가 디자인하신 S.M. 천상의 보석 시리즈를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sm-celestial.com/>

파라마한사 시리즈는 다음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paramhansa-331e.php>